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938호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양승조 지사, 당진~천안 고속도로 '국비 반영' 요청

당진~천안 고속도로 등 4개 현안 설명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난데 이어, 이번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 나섰다.

국비 확보전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 중 내년 정부예산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 ▲당진~천안(당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건설 등 4개 현안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먼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지만, 당진~아산 구간이 단절돼 지난 2015년 착공한 아산~천안 구간이 완공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충청(기호) 유교의 유 · 무형 자원 연계로 광역 관광권을 형성, 충청 지역의 경제 · 사회 ·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 실시설계비로 26억여 원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인 만큼, 내년 국비로 2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은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및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이자,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 대비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며 15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앞서 국회를 방문, 박완주 의원 및 이혜훈 의원 등을 만나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개량 2단계 ▲옛 도청사 국가 매입 예산 확보 등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액이 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사업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9일에는 도정 7대 현안 사업을 추려 국회를 방문, 조승래 의원, 안상수 예결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성일종 · 이장우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구 기자

세종시 복지재단 내달 출범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해 20억 출연하여 5년간 100억 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우리시는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복지수요가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육, 교육, 고용 등 보편적 복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복지환경 불균형을 개선하고 복지시설의 급증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효육적인 인프라 운영이 필요 하기에 복지 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복지재단은 ▲정책.연구조사 ▲민.관 복지자원 지원 ▲시민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타당성 연구 용역 시작, 7월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공모를 통해 전문가 15명으로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17년 9월 행정안전부와 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협의을 마쳤다.

복지재단의 임원은 이사 8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에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출범 초기에는 1처 3팀 12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태선 기자

LH, 한국형 스마트시티 선보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8'참가

세계 각국 관계자 대상 LH 스마트시티 홍보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LH는 13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8(Smart City Expo Wolrd Congress 2018)'에 참가하여 한국의 축적된 스마트시티 역량을 세계 각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국가 · 도시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유관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이다.

올해는 146개국, 700여개 도시에서 전시 및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844개 전시부스 운영과 400여건의 연설이 있었으며, 2만 1천여명이 넘는 정부조직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명실상부한 세계 스마트시티 관련 최대 전문전시회의 명성을 이어갔다.

LH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으로서 한국 스마트시티 역사 및 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LH에서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쿠웨이트 압둘라신도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신도시), 스마트홈 신기술 및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을 홍보하여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전시관 내 170인치 초대형 스크린과 RFID를 이용한 인터렉티브 미디어를 설치하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소개해 방문객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까탈루냐 무역투자청, 네덜란드 지방정부인 아인트호벤시 및 리즈윅시, 태국 국가혁신 추진위원회,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등 다양한 정부조직 및 전세계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에게 LH의 축적된 스마트시티 경험과 역량을 홍보하였다.

세계 각국 관계자들은 LH가 2003년 세계최초로 도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시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U-City(Ubiquitous City)를 개발한 사례와 현재 쿠웨이트 및 볼리비아 등에서 추진 중인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놀라워하였으며, 태국 및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은 LH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신광호 LH 스마트도시개발처 부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지만 글로벌 무대에서의 홍보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라며 "이번 행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통한 관련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홍보와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기병 기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유치

대전시, 새 성장동력 창출

대전시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3대 혁신성장의 하나인 수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수소산업 관련 제품 및 부품 개발 성능 평가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구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시를 비롯해 광주와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창원) 8개 지자체가 유치에 참여했고, 정부는 1차 서면평가(11.16)를 통해 4개 지자체(경남, 울산, 전북, 대전)를 선발하고, 현장평가(11.19-20)를 실시한 뒤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발표평가(11.21)를 거쳐 대전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전시 컨소시엄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전문성의 차별화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 센터는 과학비즈니스벨트내의 신동연구단지내에 구축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고 총 사업비는 210억 원(국비 105, 시비 105)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본 사업을 위해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연과 '수소인프라 신뢰성 센터 구축 사업'을 정부출연연과 협업 환경 조성 · 수소제품 · 소재 · 부품 · 기술 시험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구성한 대전테크노파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가스기술공사로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유치를 통해서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동센터가 수소산업이 국가 혁신성장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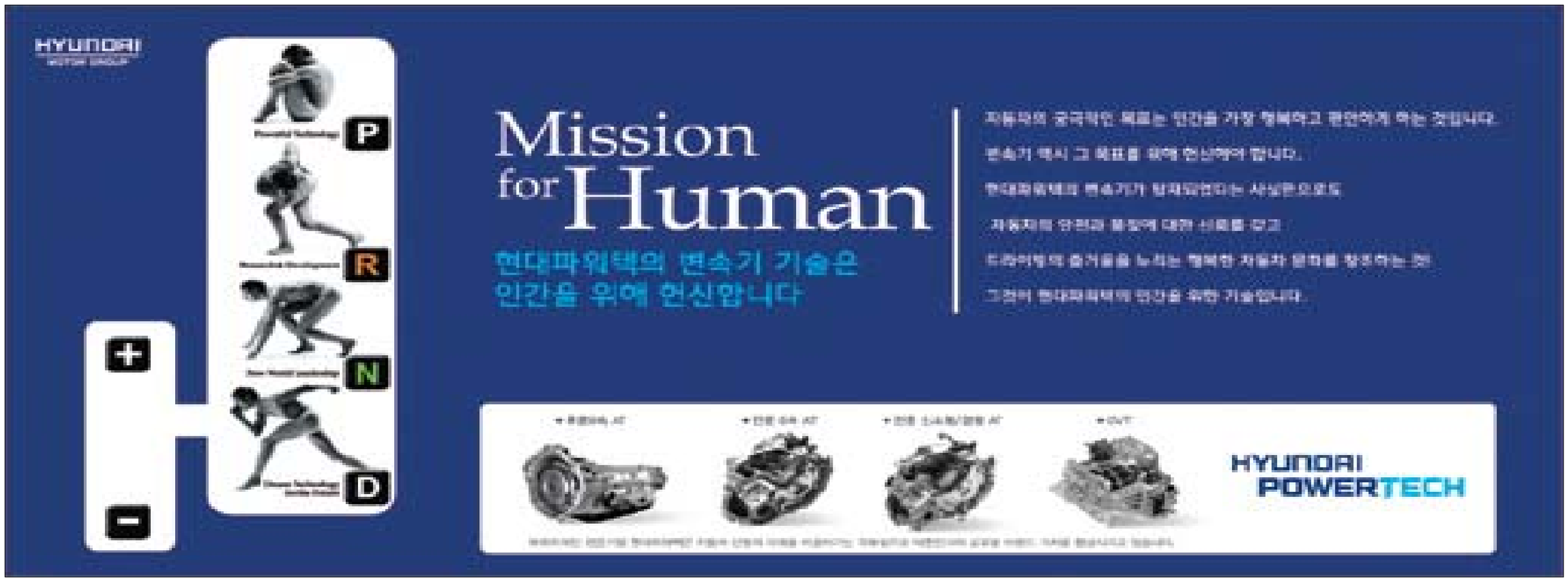
계룡시 공무원 노조, 윤차원 의원 국가인권위 진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지부장 김진태)는 지난 21일 윤차원 의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윤차원 의원이 계룡시 직원들을 '어이!'라고 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게 되었다"고 말했다.

계룡시 공무원은 "윤차원 의원처럼 공무원을 막대하는 시의원은 처음 봤다"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사실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평소 말을 못할 뿐이지 직접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속내를 밝혔다.

한편 계룡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21일 '불법 · 부당행위 종합백화점 윤차원 의원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차원 의원과 관련된 각종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세종시 첫마을 한솔중 교실 18실과 급식실 증축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시켜

최근 이슈로 부각된 학생 과밀화에 따른 한솔동 지역 중학교 배정 문제가 학교 증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전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변경안에는 최근 과밀화 문제가 불거진 한솔중학교의 증축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교실 18실과 급식실을 증축할 예정이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학생의 학습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려는 증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교육청의 행정절차는 여러 지점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 교육안전위원은"한솔중 과밀화는 예견되는 일이었으나 사전에 학생 유발률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민원을 불러왔고, 학교를 증축한다고 해도 일부 학생들은 1년간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시청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 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시청 시민안전국을 시작으로 소방본부, 28일과 29일에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 동구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2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39회 정례회 부의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5일간의 제239회 정례회 회기 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28건의 의안접수 사안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행부의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내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석곤 의원, 금산군 사고 위험 예측 도로 개선 촉구

남이면 매곡리 진출입 국도 13호선과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사고 위험 상존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이 도정과 교육행정을 아우르는 현안 해결사를 자처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고 위험이 예측되는 진입도로(국도 13호선) 및 만악교 도로 개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산읍 남이면 매곡리 진출입 부분은 국도 13호선의 'V자'형 경사로 저점으로 매곡리에서 국도로 나갈 때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진산면 소재 만악교 역시 교량 폭이 좁은데다 양방향 모두 굽어진 도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다리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민이 한 명이든 백 명이든 도로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다"라며 "회전로터리 또는 교량 설치 등을 통해 직진 차량과 진출입하는 차량이 겹치지 않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도 교사학습공동체와 교권강화, 교장공모제 등에 대해서도 송곳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모습을 보고 희망을 찾았다"며 "선생님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수업결과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인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화돼야 할 교권이 현행 법 테두리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법적·제도적 교권 강화 이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다"라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에게까지 교장 공모를 확대했을 때 조직의 안정성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정환기자

바른미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신용현의원 임명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21일 1차로 28명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대전의 경우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현재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현역 신용현의원, 동구지역위원장은 한현택 전 동구청장, 유성갑지역은 심소명 전 유성구 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다.

신용현 의원은 "중구와 서구 등 경합지역 지역위원장 인선까지 빠르게 마무리하고, 민생과 정책중심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지역위원장 임명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로 붉어진 대전시 민주당의 공천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지고,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이명수 의원 '아산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강훈식 의원과 공동 주관‥ 26일 국회도서관 앞

이명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26일(월)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앞 숲속공터에서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특판 직거래행사」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 땀 흘린 수확으로 가을의 결실을 내놓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아산시는 밥맛 좋은 벼 품종개발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품종개발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내는 등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직거래행사를 "아산시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조금이나마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회 판매전을 계기로 아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아산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모색하여 아산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청 및 농협 아산시지부와 단위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아산 맑은 쌀, 사과, 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동구선관위 '찾아가는 조합장선거 특별강의'

동대전농협 임직원·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등

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특별강의를 22일 동대전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강의는 동대전농협 임직원 및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선거법 교육과 사전투표체험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강의 내용은 ▲선거운동 ▲각종 금지·제한사례 ▲과태료·신고포상금 제도 ▲정치후원금 기탁금 제도 안내이며 사전투표기기 체험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내년 3월 선거에서 대전 동구지역은 3개조합(동대전농협, 산내농협, 대전충남우유농협)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업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공정하게 실시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 '헌혈의 집' 아산 유치 성공

'헌혈의 집'이 2019년 5월 이내에 아산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우전빌딩 3층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자유한국당)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의 여러차례 대면보고와 협의를 통해 아산시내 헌혈의 집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끝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시 인구가 각종 산업단지개발 및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며, 대형병원 신설 및 증설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혈의 집 신설을 통해 헌혈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공급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아산 헌혈의 집'은 초기 계획 당시,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유동인구 비교 및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몰 및 인근 상가의 공실 부재로 인해 KTX아산역사 권역 펜타포트몰로 변경됐다.

그러나 펜타포트몰도 입대 계약의 불발로 헌혈의 집 신설이 좌초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명수 위원장의 꾸준한 관심과 유치 의지 등으로 아산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상가에 임대계약을 마치는 등 헌혈의 집 유치에 성공하게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바른미래당, 직능단체 회장단 산행형 정책간담회

24일 개최 "신음하는 경제, 직능단체 회장단에게 해법 경청"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전국직능위원회(위원장 황한웅)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북한산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직무대행 이정만) 회장단 및 사무총장단 60여명과 산행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안 하나하나를 파악해 정치에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미래당 '찾아가는 민생 탐방'의 일환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책해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손학규 당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후 첫 민생행보로 직능단체 소상공인들을 만난 것은 민생 현장을 찾아서 서민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였다"라면서 "기득권 세력이 민생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물경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번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한웅 전국직능위원장도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표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바른미래당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실물현장경제의 주역들인 직능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최저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저임금 동결에 국회 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집권여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김성구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 마련 필요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의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구본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서도 ICT융복합 확산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팜 시설 보급, 축산분야 ICT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4차산업혁명 특별시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육성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한편, 구본환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시 농업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시설 보급과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농작업의 스마트화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시 농가의 농작업 생력화와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열어

총 18건 심사 중 15건 원안가결, 2건 보류, 1건 수정가결 처리

제203회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월21일 오전 9시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맹석)를 개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오전 10시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에서는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처리하고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 처리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예산군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 26일 개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기획담당관의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6일에는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군의 살림살이인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daejeontoday.com

보령시,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가족 휴양공간 테마파크로 조성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낙조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이 감상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휴양 해수욕장으로 거듭난다.

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충청남도 및 시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공모에 무창포해수욕장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억 원을 확보하여 해변 워터스크린과 자가 모노레일 자전거, 낙후된 상설무대의 재설치, 해변 광장 조성 등 기존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국민친화형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워터스크린은 물줄기로 홍보영상, 글자 등을 표현하여 관광객들에게 무창포를 알릴 수 있는 시각적 흥미를 돋우며, 시원한 물줄기 체험도 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잔디공원에는 이용자가 직접 페달 작동으로 전기를 발생해 이동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 자전거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교육적 효과와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초록빛 푸른 나무 사이로 황토포장의 산책로도 조성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족들과 함께 치유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새단장한다.

이밖에도 경관녹지에는 낙조감상, 레저,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휴게공간인 파고라, 흔들의자를 설치해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김동일 시장은 "무창포해수욕장은 바다 갈라짐 현상과 함께 아름다운 낙조 풍경을 감상하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으로 경관 감상을 위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자가 모노레일 자전거 등 즐길거리를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가족특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유성구 노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생필품 및 이불 전달

대전시 유성구 노은2동(동장 백준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정순)는 22일 독거노인 10가구와 복지사각지대 10가구에 각각 이불과 생필품(쌀, 라면, 김치, 장류, 통조림, 화장지, 세제 등)을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인 < The 살핌 119(日日求)> 사업으로써, 독거노인 가구에는 이불을, 복지사각지대 가구에는 생필품을 지원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10가구는 그간 수급지원 등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구로 금번 생필품 지원으로 주변 이웃의 따스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였다고 전했다.

유정순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으므로 우리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다함께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2018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세종시 '우수상' 수상

지난 7월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자치모델이 5개월 남짓 짧은 시행기간에도 정부와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치인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국민성장, 분권발전 등 5대 국정목표 관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지자체의 정책 · 사업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99건의 국정목표 관련 정책 · 사업이 접수됐다.

1차 심사결과 세종을 비롯한 대구, 서울 성동 등 7곳이 우수지자체에 선정, 이날 최종 경진대회에서 사례 발표와 전문가 심사가 실시됐다.

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국민주권 분야에 제출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시는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주민자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범사업과 주민참여로 추진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분야에서는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치분권 정책의 우수모델로 인정받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인재원은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한 우수지자체의 정책 사례집을 발간해 전 자치체에 배포하는 한편, 교육과정 강의에도 포함시키고, 현장방문 대상지에도 반영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발맞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모델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모델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제12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

대전동신과학고 대상 수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배상현)은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에서 대전동신과학고(지도교사 김숙영)가 고등부 대상을 수상해 대전 천문우주과학 교육활동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했으며, 천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천체망원경을 조작해 관측대상을 찾는 능력 등 천문우주 동아리 활동의 전반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 · 고등학교 천문우주 동아리 학생들이 4인 1조로 참가하며, 지역별 예선대회를 거쳐 올라온 37개 팀이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대전에서는 중학교 5개 팀, 고등학교 2개 팀이 출전했다.

대전동신과학고의 대상 수상 이외에도 대전고(지도교사 최유정)가 고등부 동상, 대전지족중(지도교사 오상진)가 중등부 은상, 대전문정중(지도교사 장현민), 대전버드내중(지도교사 심재신), 대전장대중(지도교사 차은정)가 중등부 동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환 기자

하반기 세종시 수출기업 첫걸음 교육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세종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경용)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세종시 수출기업 첫걸음 교육'을 공동개최했다.

교육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로 세종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20여명의 교육생이 참가했다.

교육은 ▲무역실무 ▲무역계약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영업전략 ▲온 · 오프라인 활용 마케팅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전 무역협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생들의 학습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와 협회는 내년에도 세종지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역교육 개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송병배 기자

청양군 100인 토론회 개최

구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및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 모색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2일 군민체육관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청양군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돈곤 군수와 청양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7기 군정 현안 사항인 구)청양여자정보고 중심 구도심지역 활성화 방안과 공동브랜드(칠갑마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묻고 지혜를 모으는 소통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군에서는 민 · 관 협치의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한 10개의 소그룹 원탁 토론을 먼저 실시했다.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군이 아닌 군민의 관점에서 토론 주제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청양군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건의 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군민들은 청양여자정보고 부지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령화가 높은 지역의 특성상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운영과 유아 · 청소년 문화공간시설, 농업생산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공동브랜드(칠갑마루)를 활용한 제품 홍보, 판로 확대 등 마케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양군 특성에 맞는 공동브랜드(칠갑마루) 디자인과 명칭 변경을 통해 청양 브랜드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군은 민선 7기 5개월 동안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군민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군정자문위원 확대 구성, 군민 참여 공약실천 배심원제 운영, 군 행정조직을 일 중심 · 군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소통과 군민참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다.

특히, 군청 소재지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정산면을 비롯한 산동 4개 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민간인 명예감사관, 명예 실 · 과장 제, 공약이행평가단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군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오늘과 같은 민관 협치 공론장에서 군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원탁토론회가 우리 군 협치기반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장과 토론회를 실시해 민 · 관 상호 이해 및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협치 청양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 기자

충남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수상

소통 · 콘텐츠 등 우수

충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을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22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서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기관의 고객지향적 소통 마케팅 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수상 기관은 소통 지수와 콘텐츠 경쟁력 지수, 운영성, 심의위원회 등 4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도는 종합지수 76.76으로 'AA' 등급을 받으며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지난 7월 도 홈페이지 콘텐츠 배치와 구성을 모바일에서도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개편하고, SNS 채널과의 연동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종이로만 발간되던 도정신문을 온라인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개설 · 운영 중이다.

특히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 고품질 비주얼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 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제공 중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밖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유 중인 사진의 품질이 높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준섭 도 공보관은 "도는 그동안 소통 확대를 위해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고,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은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최신 경향을 반영해 소통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에도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관 제10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에서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현장 의견 반영 급여비용 고시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20일~21일 2일간 공단 대전본부 2층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급여비용 고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지역 관내 약 20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기관은 약 400개소로 교육 만족도는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희무 본부장은 "올해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공단에서는 서비스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일선에 계신 종사자분들과 여러분들의 협조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오늘 실시하는 고시 교육은 기관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으로 충분히 숙지하시어 서비스 질 향상과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병배 기자

●동 정●●●

민원행정 역량강화 관리자 연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3일 오후 2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2018년 민원행정 역량강화 관리자 연수'에 참석.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23일 오전 11시 계룡스파텔에서 열리는 2018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 한민시장(제2주차장)에서 열리는 한민시장 김장문화제에 참석.

1사1촌 및 봉사 대상 시상식

황인호 동구청장= 23일 오전 10시 30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리는 제13회 1사1촌 및 봉사 대상 시상식에 참석, 오후 5시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직원화합 한마음 잔치를 개최.

한민시장 김장문화제

장종태 서구청장= 23일 오후 2시 한민시장에서 열리는 한민시장 김장문화제에 참석.

제13회 1사1촌 대상 시상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23일 오전 10시 30분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3회 1사1촌 대상' 시상식에 참석.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23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3시 30분에는 대덕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대덕문화가족 작품발표회' 방문해 축하인사를 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특별강연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22일 구청 청렴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대덕구 공직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직장교육은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장의 '2018년 마을'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혁신정책과 지역상생'에 대한 특강으로 이어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에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서울시 시정 철학과 정책 성공사례, 주요 성과, 핵심 성공요인 등을 소개했다.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경청한 박정현 구청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인력부족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작고 소소한 생각이 우리지역이 희망과 선도적이고 발전적인 도시로 진일보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주변 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계룡건설산업㈜, ㈜케이지종합건설, 크로스종합건설㈜, 대한 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사단법인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가 뜻을 함께했다.

또한 협약에 따라 계룡건설산업㈜, ㈜케이지종합건설, 크로스종합건설㈜은 지역전문건설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70% 이상, 지역건설장비와 자재 구매, 현장 간이식당 설치 지양, 사업장 주변 상점가 이용 등에 협조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는 하도급 건설사의 견실 시공을 유도해 품질 향상을 위해 협조하며,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는 지역생산 우수자재 발굴, 공급을 통해 건설기술 향상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며, 구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공사 관련 현안 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형건축공사장 주변 상점가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과 관련된 대형건축공사장은,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3BL 내 아파트 건설공사 1,762세대 (계룡건설산업), 둔산동 생활숙박시설 신축 공사(케이지종합건설), 가수원동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크로스종합건설)이다.

박봉관 기자

대전 중구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중구 주소갖기' 캠페인 펼쳐

대전 중구 석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수)는 22일 주민 통행이 많은 대종로 일원에서 '중구 주소갖기' 홍보를 실시했다.

동 직원과 통장협의회원 등 50여명은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하기를 적극 홍보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 경우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편의상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태수 동장은"앞으로도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중구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도시 공간정보 BEST도시 대전투어 인기

관련 학과 대학생 시청 · 연구원 방문 첨단 ICT 기술 체험

대전광역시는 22일 제5회 도시공간 정보 Best도시 대전투어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에는 목원대학교 도시공학 관련학과 학생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청, 항공우주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3D 도시정보 활용, 위성정보, 증강현실 기술 등 첨단 ICT 관련 기술을 체험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공간정보는 국방, 안보 등과 연관되어 있어 특성상 관련기관 견학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전공학생들의 도시 공간정보산업분야 현장 체험이 앞으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어에 참여한 김정현씨는"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대전시에 감사하다"며"이번 체험이 전공분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대전광역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 날 행사는 '아이와 눈을 맞춰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를 주제로 아이컨택 캠페인과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아동학대예방 영상시청, 쉐도우아트 퍼포먼스, 아동학대신고사례 발표 및 강연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시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동이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시민과 아동단체,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대전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 및 그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의 역할 재정비에 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이지킴콜 112를 개설했다.

이영호 기자

회덕농협, 대전코스모내과-대덕구연축15통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체결

회덕농협(조합장 김영국)은 지난 21일 대전코스모내과(원장 양종대), 대덕구연축15통(통장 이정신)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협약을 체결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은 도 · 농협동 범국민운동으로 기업 및 단체와 농촌마을과 자율적으로 교류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도 · 농 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코스모내과 양종대 원장은 "코스모내과는 회덕농협 조합원 건강검진 지정업체로 앞으로도 회덕농협 조합원들의 건강검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회덕농협 김영국 조합장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등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동구, 동절기 대비 노숙인 · 쪽방주민 보호활동 강화

거리노숙인 현장지원활동 및 쪽방주민 안부살피기 병행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노숙인 · 쪽방주민 동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를 유도하거나 물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로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 1회 또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수시로 대전역, 공원, 다리 밑 등을 순찰하면서 의약품, 급식,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하고 중증 만성질환 노숙인에 대해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숙인 자활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이나 주택 임차비용을 제공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을 통한 직업훈련과 자활사업 참여 후에 일자리도 안내하고 있다.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센터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주민 안부살피기를 추진한다.

조영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강력 한파로 노숙인 안전관리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전시, 노숙인시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노숙인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2019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

유성구-충남대 공동 개최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2월 8일(토)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백마홀 · 대덕홀)에서 2019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를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9학년도 정시전형을 대비한 입시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대입특강 이외에도 수도권 및 대전 주요대학 입시설명회, 현직교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1:1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정시전형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입 지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는 백마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를 초청 '대입정시전형 특징 및 지원전략'을 주제로 한 대입특강, 13시부터 17시까지 수도권 및 대전 주요대학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며, 대덕홀에서는 10시부터 17시까지 대전진학지도협의회가 후원하는 '현직교사와 함께 하는 맞춤형 1:1 진학상담'을 운영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2019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정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별 입시설명회는 당일 현장 참여 가능하며, 대입특강 및 맞춤형 1:1 진학상담은 26일부터 구 홈페이지및 유성이 앱을 통해 사전예약 및 현장신청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봉관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계룡버스 한울타리봉사회 사랑의 라면 기부

계룡버스 한울타리봉사회(회장 유재흥)가 지난 21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라면 60박스를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에 기탁했다.

한울타리봉사회는 계룡버스에 근무하는 임 ·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회로 2012년 9월 출범 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끊임없는 봉사활동과 성금 및 물품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 모두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에 2구좌씩 정기후원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2018년 나눔 실천 유공자로 선정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을 수상하였다.

구는 기탁받은 후원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2018년 개원의 연수교육 25일 개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은 오는 25일 오전 8시30분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2018년 개원의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외과영역과 내과 영역, 비만특집 특강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외과 영역의 최신지견에서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정인철 교수가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호르몬 치료와 비타민 D', 이비인후과 이동창 교수가 '코골이 환자 대처하기', 정형외과 정재중 교수가 '당뇨발, 감염과 괴사만이 문제일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2부는 내과 영역의 최신지견으로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미 교수가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핵심정리', 호흡기내과 박지원 교수가 '잠복결핵, 치료해야 하나요?', 심장내과 박하욱 교수가 '겨울은 심장 수축의 계절,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으며, 3부 비만특집으로 위장관 혈관이식외과 유한모 교수가 '비만을 수술로 치료한다?', 가정의학과 이수화 교수가 '내과적 비만치료의 최신 가이드라인'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동수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의무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일차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개원의 원장님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상 위주, 개원의 위주, 증례 위주'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개원의 선생님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대덕구 법2동 복지 위기가구 발굴 조사 실시

누수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대덕구 법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미옥)는 지난 19일부터 동절기 대비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취약계층 목표 조사를 시작으로 돌봄네트워크 상시 발굴단 활동을 강화했다.

내년 2월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1인 중장년 가구, 돌봄서비스 제외 대상자, 신규 책정 및 전입세대, 돌봄사각지대 고위험군 총 98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만 60세 ~ 만 64세의 1인 중장년 층은 복지통장, 법동복지관, 법2동 행정복지센터 공동 협력하여 가정 방문을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목표로 하고, 기초수급 전입 및 신규 책정세대 126세대는 맞춤형 복지팀 담당자가 방문상담을 통해 누락된 복지서비스를 확인 후 누락된 복지제도 등 안내를 통해 누수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서비스(노인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62세대를 대상으로 주1회 전화하여 연락이 안되는 세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별빛(야간)방문상담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법2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 26일 복지통장, 복지만두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서산 대산항 선사 초청 간담회 열려

중국 위해교동훼리 장평 회장 서산시 방문… 서산~위해항로 개설 검토

서산시는 평택~위해항로를 운항중인 중국 위해교동훼리를 초청해 "서산 대산항 선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산~룽청항로의 투입선박 확보 지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위해교동훼리 장평(張平) 동사장(회장)이 직접 참석해 서산~위해항로 개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교동훼리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짧은 접안 시간, 넓은 야적장, 편리한 진입도로가 대산항의 강점이며 항로개설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 설명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많은 시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지만, 조속한 취항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단 하나하나 실수 없이 추진 할 것"이라 말했다.

서산시와 위해교동훼리는 앞으로 내년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위해항로 개설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아산시 수소버스 보급확산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1일,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시범도시 6개 지자체와 함께 아산시 · 환경부 · 산업통산자원부 · 국토교통부 · 현대자동차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김정렬 국토부2차관,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과 오세현 아산시장 등 8개 특별 · 광역 · 기초 단체장이 참석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소버스의 확산', '수소버스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마친 오세현 아산시장은 수소버스 브리핑 및 수소차 미세먼지정화 시연회 참관과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 시승행사도 가졌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과 충남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농도가 충남의 최고치, 수도권과 비슷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리고 관내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 등 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때에 2019년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수소버스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수소경제사회 진입의 문을 선도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2018년 농림어업조사 실시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송금영)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충청지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8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 파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로 조사 된다.

농가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또는 지난 1년간(2017.12.1. ~ 2018.11.30.)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 또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이다.

임가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3ha)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2013.12.1 ~ 2018.11.30.) 육림(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2017.12.1.~2018.11.30.)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또는 직접생산(채취업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이다.

해수면어가는 지난 1년간(2017. 12.1. ~ 2018.11.30.)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2017.12.1. ~ 2018.11.30.)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이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 제33조및 34조에 의거 보장되며, 조사를 위해 대상가구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및 보도자료를 통해 '19년 4월에 공표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박창수 담당자 042-366-8261)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철도공단 '철도 방음시설 최적화 기술' 등 철도 10대 기술상 선정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까지 2건 선정…수입대체 · 예산절감 성과인정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하는 '2018년 철도 10대 기술상'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과 '철도 방음시설 최적화 기술' 2건이 선정되어 지난 2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경기도 의왕시 소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 10대 기술상'은 올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차량기계, 궤도, 토목, 정책운영, 융합 등)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한국철도학회에서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 상이다.

철도 10대 기술상에 선정된 철도공단의 기술 중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TCS-2)'은 4세대 통신을 철도환경에 최적화한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이용해 시속 350km/h의 고속열차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가철도망 철도신호시스템의 표준화 및 외국 기술의 국산화로 기술자립은 물론 수입대체 효과와 건설비 절감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철도 방음시설 최적화 기술'은 선로 가까이에 낮은 높이로 설치되는 방음벽으로, 공단은 철도 소음이 궤도 · 바퀴 · 엔진 등이 위치한 열차 하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으며, 방음벽 높이를 더 낮게 설치함으로써 건설비 절감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열차 승객들의 조망권까지 개선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식에 참석한 김도원 KR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철도건설과 시설관리 업무에 접목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전식약청 시험 · 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2일 관내 자가품질위탁 시험 ·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식품 · 축산물 시험 · 검사기관 검사원 교육'을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식품 · 축산물 시험 · 검사기관 검사원 교육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는 자가품질위탁 시험 ·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적용사례 ▲장출혈성 대장균 시험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시험법 교육을 통해 시험 ·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선문대 이웃사랑 실천 20년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21일, 선문대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축제는 한 해 동안 실시했던 다양한 봉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문대 음악 동아리 샤프뮤지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재영 부총장의 축사에 이어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선문대 총장상에는 선문대가 2014년에 구성한 교육기부연계협의체를 함께 운영한 김옥미(온양용화중), 김원미(온양여중), 신봉화(온양신정중), 권은숙(아산중) 교육복지사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정혜숙, 아산시지원봉사센터 강현미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사랑의 빵 나눔봉사 활동에 카스텔라 믹스 3톤을 후원한 ㈜두레디앙 정세호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개인봉사상으로는 김보겸(동북아학과) 외 8명이 단체봉사상은 징검다리 외 4개 동아리가 수상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노인 복지 활동의 최수현(간호학과 · 2학년)이 대상을, 베트남 귀환여성과 그 자녀의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한 멘토링 및 정보제공 캠페인'활동을 한 최진나(상담 · 산업심리학과 · 4학년)이 금상을 받았다.

20년째 선문대 교직원이 매달 정기 후원하는 교직원 후원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45명의 학생에게 2,200만 원이 전달됐다. 지금까지 700여 명의 학생이 약 3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12명에게 600만 원의 희망나눔장학금도 전달됐다.

윤운성 사회봉사센터장은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와 봉사단체 그리고 학교 구성원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면서 "20년 동안 사회봉사센터를 후원해주고,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1998년 설립된 선문대 사회봉사센터는 각종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부터 표창 패를 받았다. 12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국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천안시 동남구,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독려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올해 세입목표 달성 및 납세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남구에 따르면 올해 체납차량 2402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 활동을 펼쳤음에도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13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고문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자 8788명에게 발송됐다. 동남구는 예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영치예고 기간내 납부를 통해 12월중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밀린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 영치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채기병기자

타임월드에서 겨울 정기세일 누리세요

겨울정기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는 구매 고객을 위한 상품권 증정행사와 세일축하경품이벤트, 다양한 쇼핑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주말 3일간 단일매장 30/60/100/200/400/500만원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만5천/3/5/10/15/25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7만원이상 구매후 세일축하 경품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중 추첨을 통해 다낭 반얀트리 라군풀빌라 2인 여행권(전점2명), 나노드론 공기청정기(전점1명), 발뮤다 공기청정기(전점5명), 발뮤다 가습기(전점5명)를 증정한다.

지하1층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로 전품목 10%할인 혜택을 26일까지 제공하고 시계 일부품목은 30%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텐디, 소다, 고세제화 겨울부츠 특집전에서는 탠디 앵클부츠(14만5000원)와 롱부츠 (16만5000원), 소다 앵클부츠(14만5000원), 롱부츠(17만5000원), 고세제화 앵클부츠(16만9000원), 롱부츠(21만9000원)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3층 여성의류 매장에서는 BCBG, 쉬즈미스 이월상품전을 통해 BCBG코트를 15만9000원에 구스패딩을 20만9000원에 판매하고 쉬즈미스 코트와 패딩코트를 29일까지 9만9000원~39만9000원에 판매한다.

6층 남성의류매장에서는 빨질렐리 특가전을 통해 정장(32만원), 아우터(29만9000원), 구스다운 패딩(45만원), 캐시미어 100%코트(65만원)를 25일까지 특별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10층 자주매장에서는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전으로 은빛 눈내린 트리오브제 (9900원), 털모자 꼬마눈사람 인형(1만5900원), 썰매타는 눈사람 워터볼 오르골(2만9900원), 트리LED오브제(3만7900원)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으며 지하2층 식품관에서는 충남 태안에서 직접 재배한 꽃으로 만든 수제 목련꽃차(1만5000원), 메리골드 꽃차(1만5000원), 구절초꽃차(1만원), 뽕잎차(1만5000원)를 만나 볼 수 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산야초재배 선도농업인 육성과정 수료식 열려

산야초재배 선도농업인 육성과정 성황리에 마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야초재배 선도농업인 육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청정 자연환경과 연계한 산야초 산업 발전을 위해 산야초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한 산야초 선도농업인 육성과정은 오는 2020년까지 3년 차로 추진되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임야면적이 많은 청양군에서 산야초 산업을 통한 부자농촌만들기를 이끌어 갈 산야초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진행한 교육이다.

산야초 재배기술, 농산물 유통구조의 이해 및 마케팅 홍보, 산야초 가공, 농업경영 등 농업 전반에 걸쳐 29주차의 심도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집합교육 25회, 현장교육 4회로 진행했으며, 지역특화작목 및 지역에 도입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약초 및 산채를 소개해 새로운 작목 재배에 열정이 있는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공적인 산야초 재배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세종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촉식 · 1차 회의

4차산업혁명 정책 · 산업 촉진 박차

산 · 학 · 연 · 관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세종형 4차산업혁명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2일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산 · 학 · 연 · 관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정책 분과, 융합산업 분과, 과학기술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육성 ·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 등의 심의 ·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안과 세종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도,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내달 11일까지 도내 노유자시설 · PEB 건축물 등 293곳 대상

충남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겨울철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유자시설 42곳 ▲집회장 34곳 ▲아치판넬 · PEB철골 건축물 217곳 등 총 29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시설 중 노유자시설, 집회장 등 9곳은 도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각 시 · 군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토록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지반 침하, 변형 · 균열 · 누수 등 결함 여부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폭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 전도 위험 여부 등이다. 또 ▲전기 · 가스 · 기계 설비의 관리 상태 및 안전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도 중점 점검하며,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지 시정 또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중대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사용 제한 등 선 안전조치 후 해소 시까지 중점 관리 할 방침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구기자

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합동단속

대전광역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 관리하기 위한 「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 ·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 · 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올무, 덫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등을 불법 포획, 채취하는 행위,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거나 독극약을 살포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이영호기자

아산 염치 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 확진

철새도래지인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곡교천주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최종검사 결과가 저병원성AI(H7N7)로 확진됐다.

지난 15일,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54일대 곡교천변 야생조류 분변을 시료 채취해 충북대에 중간검사를 의뢰한 결과 H7N7로 밝혀져,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검사에 들어가 22일, '전병원성 H7N7'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10km이내 예찰지역의 가금농가 159호 1,530천수에 대한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집중방역 곡교천 및 삽교천지역을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순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내 가금사육농가 축사의 내 · 외부 매일 소독 독려와 1일 전화 예찰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현장점검으로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한밭대, 스마트팩토리센터 개소식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21일 한밭대학교 산학연협동관에서 스마트팩토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병욱 총장과 신용현 국회의원, 교육부, 대전시, 대전시의회, 한밭대를 비롯한 K6U-Belt에 참여하는 5개 대학(군산대, 금오공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창원대)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oT,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이 융합되는 분야로 국내 제조업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 한밭대에서는 이미 LINC+ 사업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스마트팩토리 분야 국제공인자격증(SMSCP) 인증교육기관으로 독일의 글로벌기업인 SIEMENS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센터에는 중소제조기업이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와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자동물류시스템, PLC 교육 및 실습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재학생 및 재직자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행복도시 역사적 건설과정 영상으로 만난다"

2018년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착수보고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 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2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영상기록물 제작 용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모습을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 도시건설 현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기록화 사업으로서, 행복도시 건설의 면면을 ▲인터뷰 촬영 ▲항공 촬영 ▲로드뷰 촬영 ▲주요행사 촬영 등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기록한 후, 영상과 사진을 주기적으로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 게재하거나 방송 ·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시민들께 전달하여 왔다.

이번 제작용역의 수행업체로는 ㈜더존크리에이티브(대표 임빈만, 이하 더존)가 선정되었으며, 용역수행자인 더존은 12개월 동안 행복도시의 건설과정을 기록 · 관리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행복도시의 건설 과정은 미래세대에 계승되어야 할 중대한 역사적 자산이므로, 영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여 행복도시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행복채움금융교실' 실시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 진잠중 학생 대상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는 22일 오전 9시 대전진잠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진잠중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금융교실은 진잠중학교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이해 및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었다. 시청각실에서 1학년 5개반이 모여 신용 및 금융에 관한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퀴즈를 통한 참여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유행하는 금융사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신인식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장은 "지역 학생들의 금융지식 함양과 금융사기예방 및 올바른 경제관념 정립을 위해 대전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에도 금융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 선출

제20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 21일 전북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린 제20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시장은 회장직 수락 인사말을 통해 "2015년 세계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올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도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제9대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3곳이나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공주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13개 시 · 군 · 구가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창립됐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13개 회원도시 단체장이 참석해 제8대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7월 신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5개 도시의 가입을 승인했다.

신임 회장을 맡게 된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번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가칭)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향후 업무방향을 피력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전입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발간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들 정착 도움 주고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도 전입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입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반영해 생활에 꼭 필요한 입국 초기 체류안내, 생활정보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입신고, 혼인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교통정보, 관공서 등 주요기관 안내, 생활불편사항 신고, 생활쓰레기 처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시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아산시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제3회 당진 전국연극제 성료

"흔들리는 가을! 이유 있는 일탈!"

극단 당진과 당진 문화재단이 주최한 제3회 당진 전국연극제가 지난 11월 9일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11일간 성황리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11월 19일 막을 내렸다.

개막식에서 김홍장 시장은 격려사를통해 당진시립극단의 의지를 밝혀 많은 시민들과 연극인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연극제 집행위원장인 극단 당진 류희만 대표는 개막식 인사말에서 '흔들리는 가을! 이유 있는 일탈!'이라는 슬로건처럼 연극을 통해 자아를 되돌아보고 이웃 또는 가족과 소통하는 정서적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연극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연작품은 전국 9개 극단이 참가해 대극장과 소극장을 번갈아 가며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졌으며, 관객층은 남녀노소 다양했으며 당진시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찾아와 숙소를 잡아놓고 공연 투어를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대상은 부산 [극 연구집단 시나위]의 '뿔'이 받았으며, 금상에는 대전 [극단 떼아뜨르 고도]의 '내 사랑 하이옌'이, 은상에는 충북 [청년극장]의 '달나라 연속극'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상에는 연출상 '뿔'의 김동현 연출, 희곡상 역시 '뿔'의 작가 윤희정 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연기상에는 '다시라기'의 이계준 배우와 '뿔'의 김현진 배우가 차지했다.

우수연기상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조영근 배우와 '내 사랑 하이옌'의 신현지 배우가 수상했다. 한편 무대미술상은 [극단 떼아뜨르 고도] 가 무대기술상은 김주호 씨가 각각 수상했다.

10일간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이 4000여 명으로 집계되며 당진 연극의 미래와 희망을 보여 준 성공적인 연극제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농식품 R&D 우수성과 50선 선정

고려인삼 콜레스테롤 · 간기능 효능 확인 및 기능성 식품 제조 해외 수출 견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2017년 농식품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수주한 과제로 고려인삼의 콜레스테롤 및 간기능의 효능 규명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한 수출 달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당뇨병 합병증 개선 및 혈류개선 효능과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작용에 대한 기전을 규명해 고려인삼학회지(Journal of Ginseng Research) 등에 논문으로 발표 했으며, 콜레스테롤과 간기능 개선 효능 및 기전을 밝혀냈다. 현재 임상시험 완료 단계에 있다.

또한 연구소는 고려인삼 표준화 소재 GS-E3D의 아토피 개선 및 탈모방지 효과를 규명하고 화장품 주성분으로 식약처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GS-E3D 소재 생산기술은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에 기술 이전해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이 소재는 탈모방지용 샴푸(세화피앤씨), 처방식 반려견 사료(CHD메딕스) 및 GS-E3D 수소비누(금산금흑주식회사) 등의 원료로 판매되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명을 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인삼 표준화 백삼소재 GS-KG9은 ㈜대동고려삼과 협력해 중국시장을 겨냥한 간기능 개선용 활삼왕과 혈당조절용 활삼진을 출시했다.

표미경 국제인삼약초연구소 효능연구팀장은 "향후에도 금산군 역점산업인 백삼산업의 부흥과 인삼소비 촉진을 통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公 공주지사, 공주시 지역개발관계자 워크숍 참석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김남표)는 공주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경북 예천군 출렁다리 마을회관에서 공주시와 합동으로 지역개발관계자워크숍을 개최했다.

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1일 오후 2시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대테러 취약해역 등 해상치안 현장점검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21일 오전 국내·외테러 대비태세 강화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국가중요(임해)시설 및 주요 항만 등 취약해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천서, 나라사랑 콘테스트 입선자 상장 수여 서천경찰서장(박정웅)은 2018년 나라사랑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입선한 서천여자중학교 2학년 오태경 학생에 대해 서림여자중학교를 직접 방문, 경찰서장 상장을 수여하였다.

연산초등학교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21일 오전 연산초등학교 교정에서「연산초등학교 6·25전쟁 참전유공자명비」제막식을 거행했다.

영인면 행복키움,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실시 아산시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김영숙)이 지난 21일, 관내에 거주중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기관합동 산악구조훈련 실시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20일 칠갑산 일원에서 산악안전사고 대비 기관합동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관내 산악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했다.

철도공단 충청본부, 대전조차장역에서 지진대응훈련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펼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1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대전 대덕구)에서 지진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최근 대북안보 환경변화 반영, 효율적 비상대비태세 확립

대전시는 내달 20일까지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구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시설장비 현황: 주민대피시설 746개소, 비상급수시설 197개소, 민방위장비 5천888점, 화생방장비 9천 590점 등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민대피계획에 따른 적절한 장소 확보·관리상태와 비상급수 적정량 확보 및 수질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기타 민방위장비 등의 정상작동과 관리 상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의 대북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그 동안 폐쇄적 이미지인 비상대피시설을 시민여가 공간 제공 방안 검토 등을 통해 평소 내 주변 비상대피시설 위치 인식을 제고하여 유사시 시민 보호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라돈)이 검출된 일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임시 폐쇄조치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3계절(겨울, 봄, 여름) 시민이용실태 조사 등 급수시설 수질안전성 확보와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주은영 비상대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효율적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태안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당부

일반주택의 화재피해 줄이기 위해 설치해야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5년7월24일)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2%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 주택에서 발생했고 최근 6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46,920건으로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4.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통장 협의회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한 전 방위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의 안전지킴이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당진소방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피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편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경찰 합동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실시

고용질서 확립과 고용서비스 개선 위해 집중 단속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용질서 확립과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를 직업소개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도단속에 앞서 관련내용을 현수막게시를 통해 알린바 있으며, 직업소개사업 등록 90개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보내 자가진단하도록 한바 있다.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무등록 직업알선(일용근로 포함), 명의대여 영업,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의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이며 무등록 직업알선, 명의대여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에 따라 형사 조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중한 처분이 따른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 중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구직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초록리본 달아요

대덕구 '두시에 만나요' 교통캠페인 실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2일 신탄진초등학교 어린이 및 석봉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두시에 만나요'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매월 22일을 교통안전문화의 날로 정하고 교통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이 날 캠페인은 대덕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교통안전협회 등 약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에서 규정속도(30㎞) 지키기, 음주운전 금지, 어르신 무단횡단 금지 등을 홍보했다.

2017년도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1,76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의 422%에 달하며, 월별로 살펴보면 9월에는 191명, 10월은 186명, 11월은 170명으로 나들이객이 많은 가을철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9월부터 오정동경로당, 송촌동 선비마을5단지경로당, 석봉경로당 등 경로당 어르신들 약 200명에게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건너시도록 '초록리본'을 달아드렸다.

김태선기자

'건설현장 무사고 달성 위한 건설안전실천협의회'

대전국토청, 대전국토청 발주현장 35곳 참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11월 22일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무사고 달성을 위한 건설안전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설안전실천협의회는 대전국토청 발주현장 3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금년 1월 발족하여 건설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실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는 올해 초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목표로 선정한 5대 공통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안전관리 우수실적을 공유함으로써 우수성과가 전 현장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안전관리 우수실적 발표에서,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본사 임원이 참여하는 주말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에 취약한 휴일공사 안전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일-남일(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한명이 하루에 한 가지씩 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1·1·1캠페인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까지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관리 및 쾌적한 쉼터 운영(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상호간 이름 불러주기(인포-보은3 도로건설공사) 등이 근로자 존중 안전관리 사례라는 측면에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박봉관기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업무협약 체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동대문떡볶이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1일 동떡F&B 동대문떡복이,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비행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범죄 예방 등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생활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진로지도를 강화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떡볶이프랜차이즈 동떡F&B 동대문떡복이 구건호 대표와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법무부 프루미서포터즈 강사로 위촉되어 비행청소년의 재범예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비행예방에 적극 매진하기로 했다.

송병배기자

공주소방서, 겨울철 산악안전표시판·구급함 정비

12월23일까지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20일부터 12월23일까지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악위치표시판과 119구급함을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주요 등산로(계룡산, 월성산) 위치한 산악위치표시판 76개, 119구급함 2개를 대상으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산악위치표지판 및 간이구급함 정비·점검은 산행인구 증가에 따라 등산객들의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악위치표지판 주변에 나뭇가지나 돌 등 장애물 제거 ▲노후표지판 도색 ▲파손된 표지판 보수 및 교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점검할 계획이다.

조기옥 화재구조팀장은 "건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게 되지만 산행 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크게 잃을 수가 있다"며 "겨울철에는 해가 짧으니 해가 지는 시간을 알아두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하산계획을 잡아두고 보온장비를 꼭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개강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국제통상과 한국경제 등 총 32개 강좌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진로전공탐구반)」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중3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이 바라는 진학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원하는 과목 수강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고등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중학생에게도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올해부터 추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24개 중학교(세종 누리학교 포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2학기 중3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진로전공탐구반 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강좌의 프로그램 안내서를 배부하는 등의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누리집(www.sjecampus.com)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강좌당 4명 이상 신청한 총 32강좌가 최종 개설됐으며 이번 학기 참여 학생 수는 총 234명으로 집계됐다.

중3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수강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달 간이며, 토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강좌당 총 6회, 18시간씩 운영된다. 수업은 학생 이동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BRT 정류장 근처인 성남고등학교와 세종 토즈(세종시 나성동 소재)에서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며,"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고등학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중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2019년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 진학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태안 천리포수목원, 2018 숲 체험 성료

사회적 약자 · 청소년 2,633명 참가… 만족도 94%로 높아

충남 태안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원장 김용식)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숲 체험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해당 숲체험 · 교육 사업은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지원받은 공익사업으로 당초 2,320명 계획이었으나 최종 2,633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진행된 교육은 '나를 찾아 Dream'과 '숲에서 미래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과 만나다, 바다와 만나다, 힐링 탈 만들기, 내 나무 갖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나를 찾아 Dream'은 사회적 약자들(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심성순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보편적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 · 하반기 2회에 걸친 교육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숲 체험 교육 후 숲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70%에서 96%로 증가했으며, 참가자의 96%는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충남교육청, 중학교 자유학년제 학교장 워크숍 실시

자유학년제와 함께 학교생활 행복하게 즐겨요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부터 2일간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187개 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학교간 소통 ▲자존감 향상 방안 연수 ▲자유학년제에서의 학교장의 역할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체 중학교 187교 중에 95.2%에 해당하는 178교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고 2019년은 중학교 전체에서 시행 할 계획이다.

연수 첫날은 삶의 재미와 의미를 더해주는 행복수업'에 대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홍영일 팀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1년의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학교장이 지원해야 할 역할에 대해 경천중 김정식 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둘째날은 '2019년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자유학기 예술활동으로 '하바리움'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교육청 이병도 학교정책과장은 "2019년에 충남 전체가 자유학기제를 1년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 향상 방안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환기자

온양고 총동문회, 동문들의 모교사랑 · 후배사랑

남다른 모교사랑 후배사랑 학교와 지역 사회 함께하는 좋은 사례

온양고 총동문회(회장 이중휘, 덕산한의원)의 남다른 모교사랑 후배사랑이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온양고등학교(교장 안재근)는 1951년에 개교해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아산의 일 번지 명문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로 그동안 21,569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40,344㎡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아름다운 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넓은 교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총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작년에는 중장비를 지원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 주변 고목 및 외국산 소나무 등을 정비했고, 지난 11월 10일에는 운동장 스탠드 주변에 시원한 그늘막을 제공하기 위한 느티나무와 울타리 주변에 산수유를 식재할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정원수를 기증했다.

정원수 기증은 최근에 총동문회 회장을 지낸 동문(14대 박성관-27회, 15대 임병욱-32회, 16대 이중휘-33회)과 7회 남용인(9대 총동문회장) 동문이 함께 했다.

특히 남용인 동문의 모교사랑 후배사랑은 남다르다. 1992년부터 매년 10여 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교 교정에 벚나무, 잣나무, 주목 등을 심는가 하면 전지 작업을 직접 하는 등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금년도에 행복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퍼걸러(일명 원두막) 등을 설치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쉬는 날에는 지역 주민과 아름다운 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운동장 스탠드 주변 느티나무 아래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휴게용 의자를 추가 설치하여, 피로에 지친 학생들에게는 쉼이 있는 행복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쉼터로 함께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독서문화공동체운동, 당진시 종합우승

대통령기 제38회 국민독서경진 충청남도 예선대회 시상식 개최

대통령기 제38회 국민독서경진 충청남도 예선대회 시상식이 22일 오전 11시 서산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김진수 도문고회장, 구자승 도새마을봉사팀장, 임동규 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이관석 서산시새마을회장, 시군문고회장, 수상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서문화운동 종합평가 부문은 새마을문고당진시지부가 종합우승, 우수상에는 새마을문고보령시지부와 새마을문고서산시지부가, 장려상에는 새마을문고아산시지부와 새마을문고청양군지부가 차지해 시상대에 올랐다.

개인부문에서는 청양군운곡초등학교 5학년 이지민, 공주여자중학교 2학년 노유민 ,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노수진, 당진시 대호만로 23-13 이상자가 단체부문에서는 당진시서정초등학교, 당진시신평중학교, 서산시서일고등학교가 최우수에 입상해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도교사 상에는 아산시천도초등학교 김종민, 공주여자중학교 정미자, 당진시신평고등학교 유은숙 선생이 선정되어 수상받는등 모두 49명이 수상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모한 독후감은 도내 145개교 초 · 중 · 고 학생을 비롯해 일반부와 독서동아리 분야에서 모두 2430여 편이 응모됐다.

김진수 도문고회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므로서, 독서하는 습관을 잃어가는 등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앞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통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서부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5개교 대상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은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부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행 · 재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5개교: 가수원초(11.21. 10:00~12:00), 대전괴정중(11.21. 14:00~16:00), 대전백운초(11.22. 10:00~12:00), 대전갈마초(11.22. 14:00~16:00), 대전유천초(11.23. 14:00~16:00) 등이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학교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갔다.

또한, 사업실행계획의 추진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현황 등 현안 과제의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의 효율적 운영 방향 제시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우수 사례 공유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천교육지원청 '부모성장학교' 수료식 개최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학부모지원센터는 22일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思)고치며 4.0미래로(路)'라는 주제로 2018 하반기 '부모성장학교'를 마무리 했다.

이번 연수는 경희대학교 석철진 교수를 초청해 진행하였는데 강사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미래 인재상으로 언급하며 "인성교육과 함께 자녀들이 자유롭게 체험하고 생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지연 학부모협의회장은 "학부모강좌를 통해서 어렵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올해 연속기획으로 상 · 하반기 '부모성장학교'를 마무리한 서천교육지원청에서는 2019년에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학부모교육을 기획할 예정이다.

서천=김성구기자

세종시교육청, 장애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애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안전교육 ▲마방 견학 ▲말과 친해지기 ▲트레킹 ▲말타기 체험 등 살아있는 말과의 교감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체험하고 정서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고, 동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심리적 정서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맞춤형 교육지원을위한 세종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교육 지원하고있다"며,"이번 승마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한국영상대학교,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협약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21일 세종발달센터(세종시 새롬동) 교육실에서 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과 안우상 교수, 이정원 세종발달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 예산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 연수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내 아이와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8 예산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연수를 운영했다.

진로관련 담당자 합동 워크숍 운영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심훈) 지난20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아산시진로체험처 대표자, 중학교 진로교육 담당교사, 아산시청 및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계자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체험처와의 네트워크 강화를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보령교육지원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1월 월례회 및 연수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지난 20일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1월 월례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군문화엑스포' 지원체계 본격 가동

충남도, '충남도 지원단' 18개팀 구성… 35개 지원사업 발굴 · 추진키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도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군문화엑스포 '충남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35개 지원 · 협력 과제를 발굴 ·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지원단은 도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이 총괄관을 맡고, 총괄지원 · 재난안전 · 국제협력 · 행정지원팀 등 총 18개 팀으로 구성했다.

도 지원단은 각 팀별로 △재난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행사장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자원봉사 운영 △행사 기간 중 다양한 공연 지원 △도로, 주차장, 행사장 및 부대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총 35건의 지원 · 협력 과제를 발굴 · 지정하고,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총괄지원팀은 도 지원 상황 총괄, 중앙부처 협력 및 예산, 입장권 예매, 학생 유치 등을 지원하며, 재난안전팀은 강우, 지진, 태풍 등 재난 대비 지원 및 행사 종사자 안전 교육, 원산지 단속 등을 담당한다.

국제협력팀은 해외 홍보와 국제행사 개최 지원, 해외 주요인사 초청, 통역, 기업유치 등을, 행정지원팀은 유관 단체 협력 체계 구축, 의전 · 인력 · 장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 지원단은 22일 첫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2월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해 3월부터 분기별 1회 정례보고회를 개최, 준비 태세를 확립한다.

2020년 상반기에는 매달 정례보고회를 열고, 같은 해 7월 이후에는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총력 지원 태세에 돌입한다.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주재로 연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상황 보고회'는 도 지원단의 지원 · 협력 과제와 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계룡시의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도 지원단 18개 팀별 지원 · 협력 과제 보고와 세부 실행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부지사는 "군문화엑스포는 꽃박람회와 인삼엑스포 등 기존 대형 행사와는 달리, '군문화'라는 주제의 독특함과 군과의 특수성으로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지원단을 보다 빨리 구성했다"며 "향후 조직위와 협의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 · 검토하고, 도와 중앙단위 각종 행사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나소열 부지사는 "군문화엑스포는 국방부, 3군 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군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도 지원단이 소관 팀별로 조직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문화엑스포는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평화로 하나 되는 월드 밀리터리(World Military)'를 주제로 개최한다.

김성구 기자

●동 정●●●

충청남도聯 사랑의 쌀 기증식

양승조 충남도지사= 23일 오후 5시 30분 도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사랑의 쌀 기증식'에 참석.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

세종시 전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연호)가 2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허성무 전의면장을 비롯해 전의면 주민자치위원 등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영시 산양읍사무소(읍장 정호원)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개청한 통영시 산양읍 청사 및 다목적센터를 둘러보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주 광산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역임한 강광민 박사(조선대학교 외래교수)를 초빙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연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전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층 발전하고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10기 주민자치위원 25명(고문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지공예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김태선기자

세종첨단산단캠페인 이웃성금기탁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첨단산업단지협의회 입주기업 대표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을 기탁했다.

세종첨단산업단지협의회 소속 기업 21개소는 2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세종참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양희준 첨단산업단지협의회 회장과 회원, 염기택 소정면장, 김태수 첨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김동후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나눔에 참여한 기업은 △금송산업개발(주)(대표 박상혁) △거성콤프레샤(대표 민덕현) △아이모스시스템(주)(대표 채종득) △이지스(대표 김동응) △(주)나우코스(대표 노향선) △(주)대교에이스(대표 구자왕) △(주)디아이메카트로닉스(대표 김창호) △(주)멈스(대표 이세영) △티제이산업(주)(대표 차명신) △(주)싸이텍(대표 오두환) △(주)클레슨(대표 양희준) △(주)미래정보기술원(대표 정대영) △(주)제원에이스산업(대표 조충식) △신신제약(주)(대표 김한기) △엠에스글로벌(주)(대표 최명신) △(주)원창포장(회장 오석주) △제이케이티(대표 김장기) △(주)경도이엔씨(대표 임정주) △(주)신안피엔씨(대표 김일영) △(주)디엔에스(대표 박화경) △(주)한국비엔씨(대표 최완규)이상 21개소이다.

양희준 세종 참단산업단지협의회 회장 및 (주)클래슨 대표는 "추운 겨울 지역내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지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충남도 특사경 활동 최우수 기관에 아산시 선정

도 민생사법경찰팀, 제2회 경진대회 개최…천안시 · 태안군은 '우수'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1일 도내 시 · 군 특사경을 대상으로 '제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 아산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 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도가 수립한 월별 기획 · 테마 단속 계획에 따라 민생 6대 분야 시 · 군 교차 · 합동 단속을 실시 중이다.

6대 분야는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 축산물위생 등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사경 활동 우수 시 · 군을 선정 · 포상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심사는 수사의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의 항목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결과, 아산시가 '아산은 환경범죄와 전쟁 중'이라는 주제의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천안시와 태안군이 우수상을, 논산시 등 3개 시 · 군이 장려상을, 공주시 등 9개 시 · 군은 노력상을 수상했다.

도는 이들 수상 기관에 표창과 함께, 최우수 아산시에는 120만 원을, 우수 2개 시 · 군에는 각각 80만 원을, 장려 3개 시 · 군에는 50만 원씩, 노력 9개 시 · 군에는 30만 원씩의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충남 특사경의 수사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자긍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충남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및 2019년 배분금 지원

"충남의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충남지역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난방비로 총 11억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 신청사업 및 복권기금사업으로 18억 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목적으로 각 시 · 군청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저소득가정 4000세대에 1가구당 2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316개소에 3억원을 지원해 시설 생활인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시설규모에 따라 난방비를 차등 지원한다.

사회복지 기관 · 시설이 자유주제로 신청하는 '신청사업'은 62개소에 7억9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야간 방임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동 · 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34개소에 10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관형 회장은 "도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게 집행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좋은 사업들을 전개해 충남의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영유아 · 부모 정신건강 증진 힘 모은다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협약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현진)가 22일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에서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유아 및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 아동과 부모 및 양육자, 교육기관 종사자의 정신건강 도모를 위해 관내 유관 기관인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협력 및 상호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됐다.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가정양육 지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질 높은 미취학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유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육아지원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지체계를 구축,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활동과 조기대응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특히 미취학 아동의 정신건강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도모, 올바른 육아방법 등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대상자(미취학아동, 부모 및 양육자, 아동 교육기관 등) 발굴 및 의뢰 △아동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심층상담,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아동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활동 지원 △기타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은다.

또 △아동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지원 △기타 아동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 영유아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방 및 조기발견 · 심층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로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시민주권대학 수료생 배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민참여 및 세종형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자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시민주권대학'이 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시는 22일 조치원읍 구 의회청사에서 이강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민, 주민자치위원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시민주권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 수료생들은 지난 8일부터 총 12시간의 교육과정에 참여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 ▲분권사례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등 자치분권의 사상적 토대를 다지고 자치역량을 배양했다.

마을자치를 이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시민주권대학은 1기 87%, 2기 81%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이해증진에 도움이 됐다 ·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비율이 76%를 기록했다.

앞으로 ▲3기(12.7~12.21)는 보람동 복컴 회의실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심화과정 · 주제별 과정 등 다양한 운영방향을 담은 '2019년도 시민주권대학'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교육열의와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2019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과정을 구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제7기 마을대학 수료식

예산군은 21일 알토란 커뮤니티센터(응봉면 운곡리)에서 황선봉 군수, 마을대학 수강생,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제7기 마을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마을대학은 지난 10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6주간 총 6회에 걸쳐,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특색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 실천학습을 실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이 주최하고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수료식에서는 이경진 행복마을지원센터장의 '마을 동아리에서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고 교육 전 과정의 2/3이상 참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군 관계자는 "마을대학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향후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마을대학을 수료한 마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양성업기자

예산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예산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22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사회 안전망 시스템인 예산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work)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회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심의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예산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의 활성화 및 청소년 복지체계를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용 위원장은 "오늘의 이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지원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관내 청소년과 연계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 보호 · 교육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양성업기자

동정

본회의

오세현 아산시장=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문화가 산책 행사

김홍장 당진시장 = 23일 오전 9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농협은행 이웃 돕기 연탄 기탁식에 참석, 오후 2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문화가 산책 행사에 참석.

정례회 개회식

김기재 당진시의장=23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

업무협약 체결식

가세로 태안군수 = 23일 오전 11시에 군청 군수실에서 열리는 '지적측량업무 처리기간 단축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

개별기업 현장방문

김돈곤 청양군수=23일 오전 10시 제25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화성면 농공단지 및 개별기업을 현장방문.

'품격있는 군민 여가' 행복지수 up

태안군, 내년 복군 30주년 기념공연 · 충남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행사 차질없이 준비

태안군이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문화 · 체육분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다.

군은 2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문화예술센터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고남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충남장애인체전 준비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 ▲도서관 장서 확충 등을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 준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길목에 위치한 고남패총박물관에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승인, 국비확보 등을 통해 2021년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군민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태안읍 평천리 종합운동장 내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750㎡ 2,000석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내년 2월 중 2단계 투자심사를 완료, 4월에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가 15만 명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보고 군민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태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6월 예정)과 제27회 충청남도생활체육대회(10월 예정)를 위해 풋살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확충 · 정비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 계층 간 문화 수혜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추진에도 앞장선다.

군은 내년 클래식, 대중가요, 연극, 어린이 뮤지컬,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고, 각 분야의 최정상급 출연진을 섭외해 군민들이 품격있고 수준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복군 30주년 기념공연(10월 예정)을 추진해 군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공연으로 수요자 중심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향유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내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군립중앙도서관에 1만 권의 신규 도서를 구입하고, 사서체험프로그램 · 인문학 프로그램 등의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병덕 문화예술센터 소장은 "점차 다양해지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 · 체육 프로그램 및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군민 여가 활동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제17회 산 · 관 · 학 교류회 열려

신성대학교 주관 · · 충남 서북지역 중소기업체 참여

지난 21일 신성대학교 융합 교육관 중강당에서 당진시와 충남 서북부지역 중소기업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대학교 주관으로 제17회 산 · 관 · 학 교류회가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그간의 산 · 관 · 학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회 1부에서는 신성대학교와 당진창업협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대전 ·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LINC+ 사업과 공학기술교육혁신사업 등 산 · 관 · 학이 협력한 성과물에 대한 전시와 당진시 일자리센터에서 개최하는 구인 · 구직 매칭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산시청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9월 토지 재산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 없고 납기 내 완납한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했다.

시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시 징수과 담당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연 300명을 추첨해 감사 서한문과 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 위한 개선 시범사업 추진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1일 도로명주소 사용 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불편 개선 도로명 시범사업으로 충절로 일부구간 국도 29호선 신설도로인 학당교차로에서부터 송방교차로까지 1.66㎞에 대해 신규로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번 추진하는 군민불편 개선 도로명주소 시범사업은 1.66㎞의 긴 종속구간으로써 현재는 충절로로 부여되어 있으나,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어 사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왔고, 막다른 길이나 도로와 도로를 잇는 종속구간에는 별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주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내 300여개에 달하는 100m 이상의 종속구간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민불편 도로명주소 시범사업 추진은 오는 23일까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절 1로 1~166번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상-제이와이-(재)태안군사랑장학회 각 500만 원 기탁

플라이애쉬 슬래그 주선업체인 ㈜대상(대표 한상각)과 '제이와이'(대표 정지이)가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군에 따르면, ㈜대상과 '제이와이'는 지난 21일 군청 군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한상각 대표, 정지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각 500만 원을 군에 전달했다.

한상각 대표와 정지이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과 '제이와이'는 지난해에도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각 1천만 원씩을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우/리/동/네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첨방식 도입

당진시,충청남도 첫 사례 · 일반시민 참여 폭 확대

당진시가 이달 30일까지 읍 · 면 · 동별로 제3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인 가운데 충남도 내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추첨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는 1기와 2기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공모위원과 추천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왔는데, 이럴 경우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3기 주민자치위원은 100%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공모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추천위원을 뽑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 선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당진시는 올해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기본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개 추첨을 도입하는 건 당진시가 충남도내 처음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공개모집과 추첨 방식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전자투표로 선정하는 주민총회처럼 시민들의 주민참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별 운영세칙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의 위원과 예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탕정면 역량강화 '복지학당' 운영

아산시 탕정면(면장 심흥섭)이 지난 21일, '제4회 행복키움 복지학당(미니강좌)'로 손정원 인권교육전문강사(장애분야)를 초청해 '다름의 동행,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탕정면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복지학당은 2018년도 4회째로 정기적으로 분기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은 복지학당 운영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탕정면 행복키움이 되고자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심흥섭 탕정면장은 "복지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복지학당을 개최해 마을복지 리더이자 탕정면의 지역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행복키움추진단을 응원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활약을 기대한다"며 추진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맛에 안심을 더하다'

청양 음식점 2곳 · 위생등급 '좋음' 지정

청양군(군수 김돈곤)의 음식점 2곳이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결과 식약처로부터 '좋음' 등급 지정을 받았다.

이번에 지정받은 업소는 청양읍에 소재한 '본가 샤브 n 칼국수'와 대치면에 소재한 '청양농부밥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지난달 24일 지정됐으며, 청양군 최초로 위생등급 지정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항목이 많고 까다로워 신청조차 어려워하는 실정에서, 같은 날 2곳이 지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등급제는 좋음(★), 우수(★★), 매우우수(★★★) 등 3단계의 등급이 있으며, 67 ~ 92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합격점 이상이 돼야 등급이 지정된다.

청양=정상범기자

하반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체험

청양군, 힐링으로 더 나은 민원서비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민원담당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충북 충주에서 2018년 하반기 힐링 체험을 진행했다.

힐링 체험 프로그램은 민원담당자의 폭언 · 폭행 등과 같은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과 달리 스트레스 자가진단, 명상을 통한 자가관리 위주로 진행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힐링 프로그램 역시 통나무 명상, 산책, 향기 명상, 걷기 명상으로 진행됐으며 힐링프로그램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업무를 떠나 휴식하고 명상하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곽병훈 민원봉사실장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과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고품격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민선7기 조직개편안 밝혀

가족행복도시 서천 건설에 맞춰 조직 개편할 것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민선7기 비전인 '가족행복도시' 건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종전 3실 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단 13개 읍면에서, 2실 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단 13개 읍면으로 2개과가 증설되고 1단이 감소되며 688명의 정원이 696명으로 8명이 증원된다.

이번 개편안은 가족행복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팀을 분리 및 사회복지실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항국가산단 1조원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과 존치키로 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문화관광과를 관광축제과와 문화체육과로 분리해 축제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9개 팀으로 편재돼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초과된 농림과를 농정과와 산림축산과로 분리하고 일부 팀들의 편재를 개편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또는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최근 방문간호와 치매안심센터 등 그 역할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13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인 보건소에 2개과를 신설해 보건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한시기구인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은 올해 12월 존속기간이 만료돼 관광축제과 모시소곡주팀으로 편입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기구의 무분별한 증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여 가족행복도시 서천 건설에 매진하겠다"며, "조직 내부 직원들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승진 등 인사요인으로 술렁이는 일 없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시연산면 환난상휼 Day 실시

자발적 참여로 더욱 뜻깊어… 복지지원체계 구축 기대

논산시연산면이 민·관이 함께하는 '환난상휼(患難相恤) Day' 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논산시연산면(면장 김종철)은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대추 꽃피는 밥상(면사무소 옆)에서 '연산면 복지자원 발굴 환난상휼 Day' 사업을 실시했다.

이 날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떡국 나눔 행사에서 사용된 백미 40포(10㎏)(이환홍 논산·계룡조합장), 밑반찬(김정순 본미가대표), 떡쌀(청동2리 정규태) 등 모든 재료는 참여자들의 기부물품으로 진행돼 훈훈함을 더했다.

'복지자원 발굴 환난상휼 Day'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지정 운영해 소외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에게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는 특화사업이다.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힘을 모으고자 유관기관·단체별로 일일음식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과 후원물품 또는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신청접수한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사업(도배·장판, 화장실보수 등), 연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22일 연산면 남·여 자율방범대원 10명이 참여한 떡국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남·여새마을지도자회, 2019년 1월 주민자치회, 2월 이장단, 3월 의용소방대원 및 농가주부모임 주관 등 지역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김종철 연산면장은 "이웃이 재앙을 당하면 서로 돕고 살아가라는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동고동락 공동체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사업장 3차 현장평가 실시

서천군 군민평가단, 6개 사업 현장평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2일 군민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평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종천농공단지 공동기숙사 건립, 서천 국궁장 신축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한산모시짜기 전수교육관 운영,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6곳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장평가 대상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중 군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거나 군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별 소관 팀장의 현장 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설문 등을 통해 사업현장에 대한 평가를 가졌다.

군민평가단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한다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건강한 수돗물을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임에 따라 목표 유수율인 85%를 달성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현장평가가 군민의 관점에서 군정을 평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사업들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평가단이 제시한 주요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 내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공정한 사회·활기찬 농촌·건강한 마을 등 5대 군정방침 담은 내년 비전 밝혀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1일 열린 제23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연설을 통해 2019년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지난 5개월은 부여군만의 새로운 질서를 근본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시간이었으며, 그 결과로 공정한 부여, 부여의 가치 정립, 청탁 없는 부여, 군민 중심의 부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업체당 1억원 이하 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기업형 축사, 폐기물업체, 태양광발전사업 등 3불정책, ▲대표적인 인사와 사업청탁 배제, ▲군민이 중심인 부여를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 당초 예산보다 8.0% 증가한 2019년 5279억원(일반회계 4900억 원, 특별회계 369억원)의 총예산안을 제출하며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 슬로건 아래 공정한 사회, 활기찬 농촌, 건강한 마을, 안전한 도시, 숨쉬는 역사 등 5대 군정방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공, 충남서남부내륙 광역관광단지 조성, 부여~평택 간 고속도로 및 부여~보령 간 국도 건설, 일반산업단지 내 첨단영농업체 유치, 상하수도 정비, 홍산~내산을 연결하는 교정선 등 추진한다.

또 세계적 명성의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2038년까지 백제왕도핵심유적 정비, 홍삼편파크, 휴양형호텔, 리조트 등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조성, 도시재생 프로젝트, 백제문화제 국가축제로 격상, 서동연꽃축제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 육성 등 역사문화가 관광이 되고 관광이 다시 산업이 되어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이끈다는 목표다.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농축산업 구축으로 굿뜨래 10품 고품격 명품화, 농업·축산업 기반의 바이오소재 산단 조성, 농민수당, 농약안전성검사(pls) 지원, 보조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통합마케팅 강화, 유통시설 현대화 등 활기찬 농촌을 만들고, 보편적 복지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행복택시, 부여형 신중년세대 지원센터 설립, 청년성장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군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군수는 "긴 호흡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래 부여에 더 큰 이익이 될지를 고민하겠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임하고, 게으름 피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천안·아산·서산·당진시 미세먼지 공동대응한다

내년엔 미세먼지 저감 공동 협의체 발족하는 등 함께 손잡아

충남 서북부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천안·아산·서산·당진시는 지방정부 공동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와 저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개 시의 미세먼지 관련 실무과장은 지난 19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모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재난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각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 연대 선언식을 아산시청에서 열고, 내년 1월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중국발 영향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간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충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13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아산·서산·당진시가 충남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 시는 산업·에너지 시설과 이동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지역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내세움에 따라 4개 시의 공동대응 노력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시 실무과장들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어느 한 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논산시 '청소년의·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전통·문화체험·청소년활동 발표회 'Youth Festival' 열려

논산시가 관내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 증진 및 감수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활동발표회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25일 전통문화체험을 시작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미스터 선샤인' 및 청소년활동발표회 'Youth festival'을 개최한다.

전통문화체험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25일 '원가네 농장'(채운면 우기리)에서 청국장, 두부만들기로 진행된다.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관내 5개 학교, 400명(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서바이벌 체험 및 선샤인스튜디오 관람으로 지역 내 문화체험 시설을 이용한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감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에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을 부제로 논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활동 발표회 'Youth Festival'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노래공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댄스와 사물놀이공연,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청소년현악앙상블과 리듬줄넘기 등 다양한 공연 및 활동사진 전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문화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Youth Festival'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주민공청회 열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

계룡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분야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경과보고, 추진 전략, 전략별 세부사업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무분과회의, T/F팀 회의를 통해 지역복지욕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모두가 따뜻한 감동 복지, 행복도시 계룡'을 목표로 ▲촘촘한 복지 ▲따뜻한 복지 ▲활기찬 복지 ▲즐거운 복지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행복한 도시 계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계획 중간점검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천안시가 업성저수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들의 생태휴식·학습공간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 자문위원,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현재까지 용역추진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과 주민의견 및 건의된 내용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하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용역은 52만4282㎡ 대지면적에 방문자센터, 데크로드, 등나무터널 등 친환경적 보전시설과 자연환경보전 안내시설, 관찰시설,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시설 등을 설치하는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한다.

앞서 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경관교량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장과 잔디광장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숲놀이터 ▲자가발전놀이시설을 이용한 전기교육 체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업성저수지 관리부서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여수토 부분에 보행교량을 설치해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해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66억원(기타 비용포함 311억) 투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번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7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조성 완료될 전망이다.

천안=채기병기자

동정

기업체 방문

구본영 천안시장=23일 오전 11시 입장면에 위치한 ㈜다영푸드 기업체를 방문.

보육인의 밤

최홍묵 계룡시장=23일 오후6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8 보육인의밤에 참석.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23일 오전 11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 오후 2시 서천초 강당에서 열리는 서천군 청소년 안전골든벨에 참석,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보고회에 참석.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열려

계룡시, 우수사례·애로사항 공유

계룡시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소득작목 발굴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2018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시설하우스 영농 교육 및 센터 주요 추진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2018년 시범사업 농가를 현장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추진된 시범사업은 ▲딸기 관부 냉난방시스템 활용 재배기술 ▲ 클로렐라 영농활용 ▲ 시설하우스 열차단필름 이용 환경개선 ▲ 고추 안정생산 ▲ 그린힐링 오피스 보급▲ 벼 상자처리 방제약제 등이다

시는 이날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평가 설문도 실시했으며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성과가 좋은 기술은 적극 홍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기술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기술과 생산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정

2018 공주백제미술전시회

김정섭 공주시장= 23일 오후 5시 고마에서 열리는 2018 공주백제미술전시회에 참석.

보령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김동일 보령시장 = 23일 오전 10시 보령시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보령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오전 1시 머드박물관에서 열리는 제38차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회, 오후 2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보령문화 27집 발간 기념회, 오후 5시 청라면 음현리에서 열리는 은고개마을 교류센터 준공식, 오후 7시 노블리안웨딩홀에서 열리는 족구인의 밤 참석.

종합전략 푸드플랜 시민설명회

맹정호 서산시장= 23일 오후 2시 베니키아호텔서산에서 열리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 시민설명회에 참석.

금산문화예술제

문정우 금산군수= 23일 오후 6시 다락원서 열리는 금산 문화예술제에 참석.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서산시, 오는 27일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 추진배경 · 추진절차 · 사업효과 등 설명

서산시는 오는 27일 갈산3통 마을회관에서 갈산동 1번지 일원 921필지/1,053,086㎡에 대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진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 협조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국비 1억9천만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9천7백만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소유자간 분쟁이 해소되고 일제의 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주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이 측량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계확인 및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주민설명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갈산동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660-3081)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한 기자

금산 열린군수실 '소통창구 역할 톡톡'

매회 6~7명 정도로 1명(팀)당 20분 내외의 시간 할애

금산군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군수실에서 두 번째 '열린군수실' 을 운영했다.

두 번째 개최한 열린 군수실에는 7명의 군민들이 참여 개별 민원을 비롯해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건의하는 등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열린 군수실 금산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인원은 매회 6~7명 정도로 1명(팀)당 20분 내외의 시간이 할애된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 제언,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인한 고충, 주민생활 불편이나 숙원 해결을 위해 군수와 면담이 필요한 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단, 열린군수실을 통해 1회 이상 면담한 한 군민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열린 군수실은 군수와 군민이 직접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며 "군정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화합행사

보령시는 22일 웨스토피아 동백홀에서 공공위원장인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명성철 민간위원장과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화합행사를 가졌다.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전문성 함양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민 · 관 협력적 네트워크와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 이어 개최된 2부 행사에서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의 박신숙 전문상담실장으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및 커뮤니티케어' 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화합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일 시장은"따뜻한 사랑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수혜자를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에 애써 오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과 웃음을 나누는 행복의 장은 물론,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복지,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보령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시설 일제 점검

보령시 청라면 난방현황 파악

보령시 청라면은 동절기를 앞두고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혼자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 192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시설 일제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혼자사는 노인이나,취약계층 중 보일러 등 난방기기의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동절기 전 수리를 완료함으로써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한 가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으며, 재료비만 지원하고 수리는 지역 전기업체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김성태 청라면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어려운 가정의 난방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발생이 높은 가구는 즉시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 및 생활 등 각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금산군보건소 주민들 생명 보호

금산군보건소는 응급상황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1~22일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의료학과 지원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금산군 공무원 300여명, 보건교사 ,체육교사, 구급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발견 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마네킹 모형을 활용한 1:1 심폐소생술 실습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응급처치란 다친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로 119신고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심장마비 등의 응급환자 발생시 119신고 후 도착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응급처치를 취할 경우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마비로부터 회복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는 Golden Time 4분 이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초초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응급 상황시 최선의 대처가 될 수 있다.

금산=김정환기자

공동주택 방범 · 소방안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1일 고마컨벤션홀에서 '2018년도 공동주택 방범 · 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해 전문강사가 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 · 소방 안전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 기업체 근로자와 간담회 가져

웅천농공단지 내 위치한 (주)동방메디칼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

보령시가 기업인 및 근로자와 생생한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웅천농공단지 내 위치한 ㈜동방메디컬에서 기업체 근로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회사현황 청취 후 공장시찰의 시간을 갖고 100여명의 근로자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근로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 규제 개혁은 물론, 보령에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동방메디컬은 1987년에 설립하고 1995년 1월 웅천농공단지에 둥지를 튼 한방용 침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제작되는 모든 제품은 KGMP, ISO, CE, FDA 등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 · 생산되고 있다.

또한 첨단 생산설비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한방 의료기기, 필러, 바이오의료기기, 미용기기 등은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세계 50여 개국으로 수출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김근식 사장은 "일류품질, 일류기업, 인류사회기여를 기업이념으로 삼아 고품질의 의료기기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정직한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과 탁월한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 임직원들께 고맙다"며, "국가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에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공주시,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추진

내년 1월31일까지 73일간 펼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와 공동으로 희망2019 나눔 캠페인을 추진, 내년 1월말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을 펼친다.

이번 희망2019 나눔캠페인은 '사랑의 열매 20주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유관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이 이뤄지는데,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실에서 집중 성금모금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에 공주시민이 모은 성금은 14억 3천만원에 달하지만 공주시에 배분된 금액은 17억 9천만원으로 시민들이 모은 성금액 그 이상으로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와 같이, 해마다 시민들이 정성들여 모아준 성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되는데, 월동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명절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복지향상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이관형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공주시청을 방문해 김정섭 시장과 면담을 갖고 캠페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2018년 월동난방비 8천 5백만원에 대한 전달식도 가졌다.

김정섭 시장은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함이 번져 모두가 행복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께서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금모금과 물품기탁에 참여할 시민은 공주시청 사회과,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각 가정에 전달된 지로용지 활용과 ARS기부(060-700-0130),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스마트시티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간담회

서산시, 중앙부처 · 자치단체 · 민간기업 등 70여명 참석

서산시는 지난 21일 스마트도시협회와 공동으로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스마트시티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현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실제 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자체 스마트시티 관련 공무원들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지봉현 사무관이 2019년 주요 정책 및 공모사업 내용, 참석한 자치단체의 스마티시티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 이웅 주무관이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및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소개했다.

또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지자체와 연구기관 상호간 의견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간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서산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생로병사의 비밀 11:55 UHD 숨터 12:00 KBS 뉴스12 1:00 TV비평 시청자데스크 2:00 열린채널 2:3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2: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0 노래가 좋아 4:00 사사건건 5:00 KBS뉴스 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35 2018 TV는 사랑을 싣고 8:25 비켜라 운명아 9:00 KBS뉴스 9 10:00 거리의 만찬 10:50 추적 60분 11:45 다큐세상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뉴스타임 9: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극장 스페셜 12:15 인간극장 스페셜 2:00 KBS 뉴스타임 2:10 다큐공감 3:05 후토스-잃어버린 숲 3:30 코딩 TV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0 뮤직뱅크 6:30 2TV 생생정보 7:50 끝까지 사랑 8:30 꿀잼 퀴즈방 8:55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10:10 연예가 중계 11:10 파리로 가는길	6:00 MBC 뉴스투데이 7:50 비밀과 거짓말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0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50 UHD 맨 도롱 또봇 12:00 12 MBC 뉴스 12:25 뽀뽀뽀 모두아 놀자 스페셜 1:30 MBC 스포츠 2018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3:55 꾸러기 식사교실 4: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4:55 5MBC 뉴스 5:15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6:15 생방송 오늘 저녁 7:15 비밀과 거짓말 7:55 SBS 뉴스데스크 8:50 토크노마드 : 아낌없이 주도록 9:55 진짜사나이300 11:20 나혼자 산다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40 모닝와이드 8:40 나도 엄마야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00 에그구그2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SBS 12 뉴스 12:50 황후의 품격 2:00 뉴스브리핑 3:50 유소년 축구 특집 경계를 넘다2- 소년들의 가을 5:00 SBS 오뉴스 6:00 미추리 8:00 SBS8뉴스 8:55 제39회 청룡영화상 10:00 제39회 청룡영화상 11:20 미추리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메디컬 인 7:0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뉴스 8:00 뉴스와이드 8: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9:00 CMB 집중토론 10:30 잘먹고 잘살고 11:00 행복비나리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0 최자영시인 내안애 그대 1:30 문화창 2:00 영웅적계왕 2:5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 3:00 CMB 뉴스 3: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4:00 메디컬 인 4:30 CMB 집중토론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뉴스 7:15 최자영시인 내안애 그대 7:30 문학의 향기 8:00 이홍렬의 볼매토크 9:00 뉴스와이드 9:5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 10:00 찾아가는 열전동네방네 11:00 김화영의 이슈앤 이슈	6:10 명의 7:00 두다다쿵 7:30 모피와 친구들 7:40 이얍! 스페이스정글 8:00 두다다쿵 8:30 봉구야 말해줘 2 9:00 명탐정 피트2 9:20 타요의 씽씽극장 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하나뿐인 지구 11:40 한국기행 12:00 EBS정오뉴스 12:10 문화유산 코리아 12:2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3:40 명탐정 피트 14:00 시뽀롱뽀롱 뽀로로 14:30 두다다쿵 15:00 드래곤 길들이기 15:25 정글북 15:4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6:00 토닥토닥 마음아 16:20 그림을 그려요 16:30 플라워링 하트 17:10 미사와 곰 17:2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18:00 톡! 톡! 보니하니 1 18:05 코봇 지구를 지켜라 18:20 톡! 톡! 보니하니 5 18:45 소년시대 18:55 톡! 톡! 보니하니 4 19:00 갤럭시 안전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20:40 다큐오늘 20:50 하나뿐인 지구 21:30 한국기행 21:50 명의 22:45 펫 다이어리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남북의 창 8:30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9:30 KBS 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30 노래가 좋아 11:30 아생여정 12:00 KBS 뉴스 12:10 국악한마당 1:05 도전, 골든벨 2:00 쥐라기캅스 2:15 좀비덤2 2:30 영상앨범 산 3:00 거리의 만찬 3:50 비켜라운명아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왕국 6:00 동행 6:55 UHD숨터 7:00 KBS 뉴스 7:10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8:00 생로병사의 비밀 9:00 KBS 뉴스9 9:4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10:20 엄경철의 심야토론 11:40 UHD KBS드라마 스페셜2018 참치와 돌고래	6:20 생생정보스페셜 7:30 다큐멘터리3일 8:35 슈퍼맨이 돌아왔다 10:30 영화가 좋다 11:3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0 최고의 이혼 2:10 최고의 이혼 3:20 해피투게더 4:45 하나뿐인 내편 5:25 하나뿐인 내편 6: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7:55 하나뿐인 내편 9:15 배틀트립 10:50 삼청동 외할머니	6:50 MBC 뉴스투데이 7:30 통일전망대 8:10 탐나는 TV 9:1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10 언더나인틴 스페셜 11:40 MBC뉴스 11:50 배드파파 1:00 배드파파 2:00 MBC 스포츠 2018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4:00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틴 4:30 나혼자 산다 스페셜 6:25 언더나인틴 7:55 MBC 뉴스데스크 8:45 MBC PICK X 언더나인틴 9:00 신과의 약속 11:05 전지적 참견시점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10 내친구 코리리 7:25 다이노코어에볼루션2 7:30 SBS 뉴스토리 8:3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0:50 접속! 무비월드 12:00 SBS 뉴스 12:10 애니메이션 런닝맨 12:25 가로채널 1:25 미추리 3:30 SBS 뉴스 3:40 여우각시별 4:55 미운우리새끼 6:00 더팬 8:00 SBS 8 뉴스 8:45 맨 인 블랙박스 9:05 미스마: 복수의 여신 11:05 그것이 알고 싶다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열린미디어시청자세상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메디컬 인 8:00 섹션뉴스 8:30 CMB 집중토론 10:00 찾아가는 열전동네방네 11:00 김화영의 이슈앤 이슈 12:00 섹션뉴스 12:30 시청자뉴스 12:50 최자영시인 내안애 그대 1:00 스포츠 클리닉 2:00 국회 24시 3:00 섹션뉴스 3:30 시청자뉴스 4:00 행복비나리 5:00 메디컬인 5:30 문학의 향기 6:00 섹션뉴스 6:30 시청자뉴스 7:00 김화영의 이슈앤 이슈 8:00 찾아가는 열전동네방네 9:00 섹션뉴스 9:30 CMB 집중토론 11:00 스포츠 클리닉	6: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6:30 통일 미리보기 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7:30 뚝딱맨 8:00 출동! 슈퍼윙스 8:30 모여라 딩동댕 9:00 너티너츠 9:30 허풍선이 과학쇼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0:3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1:50 지식채널e 11:55 지식채널e 12:00 최고의 요리비결 12:3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최고의 요리비결 13:30 최고의 요리비결 14:0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나눔 7080 15:10 지식채널e 15:20 지식채널e 15:30 세계의 눈 16:20 우리가족 거리좁히기-부모성적표 17: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8:20 다문화 고부열전 19:30 한국기행 20:35 한국기행 21:05 다큐영화 길위의 인생 22:00 EBS다큐프라임 22:55 세계의 명화 <십계>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10 팔도밥상 6:40 행복한 지도 7:1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8:00 KBS 뉴스 8:10 일요진단 9:10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10:10 이웃집 찰스 11:00 TV쇼 진품명품 12:00 KBS 뉴스 12:10 전국노래자랑 1:20 걸어서 세계속으로 2:10 2018 TV는 사랑을 싣고 3:00 비켜라 운명아 4:45 코리언지오그래픽플러스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왕국 5:40 개발 원조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7:00 KBS 뉴스 7:10 도전,골든벨 8:10 다큐공감 9:00 KBS뉴스9 9:30 역사저널 그날 10:30 저널리즘 토크쇼 J 11:20 글로벌 다큐멘터리	7:10 KBS 재난방송센터 7:20 영상앨범산 7:40 삼청동 외할머니 9:10 1박 2일 10:40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11:50 안녕하세요 1:15 죽어도 좋아 3:00 죽어도 좋아 3:30 하나뿐인 내편 5:30 해피선데이 7:50 하나뿐인 내편 9:15 개그콘서트 10:30 다큐멘터리 3일 11:40 불빨간 당신	7:00 MBC 뉴스 7:10 문화사색 8: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9:05 전지적 참견시점 스페셜 10:4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5 출발! 비디오 여행 1:20 궁민남편 스페셜 2:00 MBC 스포츠 2018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4:00 언더나인틴 스페셜 4:50 복면가왕 6:45 궁민남편 7:55 MBC 뉴스데스크 8:45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틴 9:00 내사랑 치유기 11:00 스트레이트 11:55 MBC 네트워크 특선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SBS 뉴스 6: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7:10 변신기차 로봇트레인 7:4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8:35 생활의 달인 9:30 TV 동물농장 10:50 집사부일체 12:00 SBS 뉴스 12:10 백종원의 골목식당 2:10 황후의 품격 3:30 SBS 뉴스 3:40 SBS 인기가요 4:50 런닝맨 6:25 집사부 일체 8:00 SBS 뉴스 8:45 맨 인 블랙박스 9:05 미운우리새끼 11:05 SBS 스페셜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0 최자영시인 내안애 그대 6:30 열린 미디어 시청자세상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문학의 향기 8:00 섹션뉴스 8:30 CMB 집중토론 10:00 행복비나리 11:00 국회 24시 12:00 섹션뉴스 12:30 시청자뉴스 1:00 스포츠 클리닉 2:00 CMB 스포츠 2018-2019 프로배구 삼성화재 vs 대한항공 4:00 메디컬 인 4:30 문화창 5:00 김화영의 이슈앤 이슈 6:00 섹션뉴스 6:30 CMB 집중토론 8:00 찾아가는 열전동네방네 9:00 CMB 스포츠 2018-2019 프로배구 삼성화재 vs 대한항공 11:00 스포츠 클리닉	6:00 가족의 발견 6: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7:30 두다다쿵 7:45 엄마 까투리 8: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8:30 모여라 딩동댕 9: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9:30 사이언스타 Q 10:00 갤럭시안전프로젝트 10: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1:00 장학퀴즈-학교에가다 11:20 명의 12:10 일요시네마 <탑건> 14:30 다큐시선 15:35 조식포함 아파트 16:45 세계테마기행 17:35 세계테마기행 18:15 세계테마기행 18:55 세계테마기행 19:55 극한 직업 20:15 성난 물고기 21:05 4남매 쇼 22:00 EBS 다큐프라임2 22:55 한국영화특선 <쎄시봉>

TV 하이라이트

▲ 하나뿐인 내편 (24일,KBS 오후 7시50분)

수일(최수종)은 도란(유이)과 대륙(이장우)의 이별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확신으로 대륙을 찾아가고.. 은영(차화연)과 다야(윤진이)는 새로운 요양사를 도란과 비슷하게 꾸며서 치매가 온 금병(정재순)이 앞에 데려가는데..

▲ 신과의 약속 (24일,MBC 오후 9시05분)

엄마는 현우, 현우만 있으면 돼.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선택을 한 두 쌍의 부부 이야기 <신과의 약속>

케이블 명화

▲ 살인자의 기억법 (24일 OCN 오후 8시00분)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파격적 소재! 기억과 현실의 경계에서 극도의 서스펜스와 스릴까지 선사하다!

예전에는 연쇄살인범이었지만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병수. 우연히 접촉사고로 만나게 된 남자 태주에게서 자신과 같은 눈빛을 발견하고 그 역시 살인자임을 직감한다.

병수는 경찰에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신고하지만 태주가 그 경찰이었고, 아무도 병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록하고 쫓지만 기억은 자꾸 끊기고, 오히려 살인 습관들이 되살아나며 병수는 망상과 실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진다.

다시 시작된 연쇄 살인 사건, 놈의 짓이 맞을까!

네 기억은 믿지 마라!

그 놈은 살인자다!

▲ 신비한 동물사전 (25일 채널CGV 오후 2시20분)

1926년 뉴욕, '검은 존재'가 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미국의 마법의회 MACUSA의 대통령과 어둠의 마법사를 체포하는 오러의 수장 그레이브스가 이를 추적하는 혼돈 속에 영국의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가 이 곳을 찾는다. 그의 목적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신비한 동물들을 찾기 위한 것.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신비한 동물을 구조해 안에 마법의 공간이 있는 가방에 넣어 다니며 보살핀다. 하지만 은행을 지나던 중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신비한 동물인 니플러가 가방 안에서 탈출을 하고 이 일로 전직 오러였던 티나와 노마지 제이콥과 엮이게 된다. 이 사고로 뉴트와 제이콥의 가방이 바뀌면서 신비한 동물들이 대거 탈출을 하고 그들은 동물들을 찾기 위해 뉴욕 곳곳을 누빈다. 한편, '검은 존재'의 횡포는 더욱 거세져 결국 인간 사회와 마법 사회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이 뉴트의 소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당진에 충남 배구인들이 모인다

제2회 충남도지사기 배구대회 당진서 개최

충남지역 배구인들의 축제인 제2회 충남도지사기 배구대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배구협회가 주최하고 당진시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지역 각 시군 배구팀과 남·여 동호회 등 30여 팀이 출전에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경기는 당진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두 곳에서 진행되며, 9인 제로 참여 팀에 따라 풀 리그전 또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진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열리는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18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직원 간 친목과 화합 위해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이달 24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직원 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2018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순신 실내체육관에서 갖는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체육대회는 아산시 전 직원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구를 굴려라 ▲하늘 높이 슛 ▲신발양궁 ▲낙하산 릴레이 ▲협동공 튀기기 ▲ 6인 사다리 등 명랑운동회와 함께 어린이 놀이용 에어바운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 부서를 ▲더큰팀 ▲아산팀 ▲행복팀 ▲시민팀 4개로 편성해 직원들은 그 동안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날 만큼은 모두가 친구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화합과 소통의 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동료 직원들과 같이 체력도 다지고 서로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동료애를 바탕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아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12회 청양군수기 읍·면대항 배구대회 성료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1일 10개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제12회 청양군수기 읍·면대항 배구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10개팀 3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청양읍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양면이 준우승, 운곡면과 정산면이 공동3위를 수상했다.

EN.F Total Interior Design 연.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충남대, 청년 창업 한마당투어 개최 충남대 창업지원단과 우송대 창업지원단은 11월 22일(목) 12시,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등에서 '2018년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는 기업가정신과 창업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형 창업행사이다.

오정동, 동절기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및 치매예방교육 오정동(동장 정영주)이 지난 22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 37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정안면 주민자치위원회, 2018 제4회 사랑나눔 바자회 공주시정안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동원)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면사무소 로비에서 '제4회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위성관제대대 금연성공 수료식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홍철)는 22일 자운대에 위치한 위성관제대대 금연성공 인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축하성공수료식(파티)을 실시했다.

태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일제정비 추진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등록, 안전검사미수검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대전본부, 대전충청 안전보건 거버넌스 최초회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완순)는 22일 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과 함께 대전충청 안전보건 거버넌스 최초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지역 사고사망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한밭대학교, 전국 14개 대학 30팀 117명 참여

전국 대학 최강 드론 챔피언 대회 성료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2018 한밭 드론 챔피언십(Hanbat Drone Championship)'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밭대 LINC+사업단(단장 차동진)과 IT융합인력양성사업단(단장 박현주)이 공동 주최하고, 한밭대 드론융합기술센터(센터장 도명식)와 한국ITS학회(회장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함께 주관했다.

한밭대가 우리 지역 유일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드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전북대, 제주대 등 전국 14개 대학에서 30개 팀 11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경기는 각 참가팀이 드론제작 능력, 응용능력, 조종능력 Ⅰ, 조종능력 Ⅱ 등 4개 분야 중 3개를 선택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용능력 분야에서는 한밭대 캠퍼스를 촬영하는 대상지촬영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간분석 능력을 겨루고, 조종능력 Ⅰ·Ⅱ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낚시(Ⅰ)와 양궁(Ⅱ) 대결을 펼쳤다.

21일 열린 시상식은 경기 성적에 따라 대상 1팀에게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대상, 금·은·동상, 장려상, 특별상의 총 6개 부문에서 선발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2KC_Drone팀이, 금상은 한밭대학교 드높이팀이, 은상은 영남이공대학교 Civil Drone팀 외 1팀이, 동상은 초당대학교 C.S.I팀 외 5팀이, 장려상은 제주대학교 M.C팀 외 3팀이, 특별상은 경남대학교 터잼팀 외 15팀이 수상하였다.

김정환기자

S-OIL 신달주유소, 100만원 상당 난방유 쿠폰 전달

신창면 행복키움에 난방유 후원

아산시 신창면 S-oil 신달주유소(대표 전영상)가 21일 10시 s-oil 본사에서 지원하는 100만원 상당의 난방유 쿠폰을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세흥)에 전달했다.

후원받은 쿠폰은 주유소를 연초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S-oil 본사의 나눔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것으로 신창면 저소득가정의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영상 대표는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하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여건이 될 때마다 행복키움사업에 동참해 함께 신창면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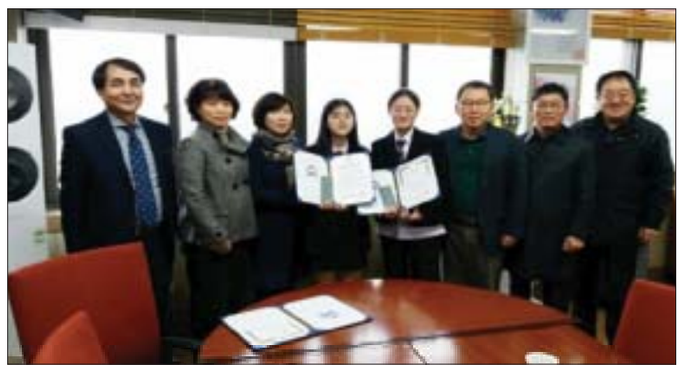
오세흥 단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이렇게 행복키움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농협, 18년째 계속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전용석)는 유성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봉사활동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나눠드리는 행사로 올해까지 18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농·축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좋은일 생기는 채용한마당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취업재정위원회의 후원으로 22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좋은(JOB)일 생기는 채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1개 지역기업체, 취업재정위원회 위원, 보호대상자등 80여명이 참가했다.

꿈나무장학회, 건양고 장학금 체결식



꿈나무장학회(회장 유미자)는 11월 22일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사학의 명문 건양대학교 병설 건양고등학교(교장 김관중)에서 장학체결식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꿈나무장학회원이신 이근섭회원께서 격려의 말씀을 통해 장학생이된 자랑스러움을 자신감으로살려 학교생활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으며 김관중 교장선생님의 환영의 말씀에서 꿈나무장학회 같은 훌륭한 모임을통해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봉기 꿈나무장학회원께서 손수만든 수공예품 펜을 장학생들에게 장학선물로 기증해 더욱 훈훈한 장학체결식이 되었다.

김태선기자

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직원 연수 실시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 등 최전방 717 OP 방문

당진시 재향군인회(회장 손순원)는 '평화통일대비 당진시민 리더스 아카데미' 201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재향군인회 임직원 연수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실시했다.

이번 임직원 연수회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로 실시해 1박 2일 동안 연간 사업보고와 북한이탈주민 강사를 초청해 북한의 실상 그리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의 간절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717OP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 재향군인회가 올 한 해는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계획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견학자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당진시민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손순원 회장은 "지역의 안보단체로 평화통일염원과 기원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당진시 재향군인회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봉황중학교, 학생 시집 '내일부터 빡공' 출간

앞선 문학 예술교육을 실천해가는 봉황중학교(교장 정재근)가 중학교 학생시집이 출간 즉시 전국적인 화두를 모으고 있다. 바로 최은숙 시인 교사가 정성을 쏟아 준비하고 출간한 '내일부터 빡공'이라는 학생시집이다.

학교마다 학생시집을 모아 소개하는 일은 드물지 않으나 긴 기간 국어수업을 통해 창작하고, 다듬고, 최은숙 지도교사의 머리말과 중견시인 오철수의 시평(詩評)을 싣고, 매력 있는 편집과 표지 디자인을 거친 '짱짱한 시집'인 것이다.

'내일부터 빡공'은 아이들의 생각과 표현에 '자유의 날개'를 허용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려면 아동의 '자유분방함'을 용인해야 한다는 교육학자 니힐의 말을 생각하게 한다. 공주 시민들은 최은숙 시인 교사의 열정으로 보면서 공주에서의 뛰어난 아동시인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로컬푸드 활용 학교급식 레시피 함께 즐겨요"

세종시 내 학생과 가족·친지, 교직원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와 전통장류의 학교급식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레시피를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로컬푸드 싱싱밥상 레시피 뽐내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우리학교 건강한 급식식단 만들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시민이 직접 건강한 학교급식 레시피 개발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레시피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다양성, 적용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총 20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학생과 가족·친지, 교직원 등 시민 3인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현장경연에서는 학교영양교사의 지도하에 Non-GMO 세종 전통장류와 우수 식재료를 활용, 창의적인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인다.

세종=김태선기자

칼 럼

중국사와 대만이야기 #31 하야시백화점, 르웨탄

문화부 김민선기자

지난 편 용호탑, 보얼예술특구, 치메이박물관에 이어 이번 편에서 계속해서 2박 3일 여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치메이박물관을 방문한 후 타이난 시내로 진입하여 시내를 둘러보았다. 어두워진 타이난 밤거리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을 주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일제강점기 때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 중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이 있었다. 바로 국립대만문학관(國立台灣文學館)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에 준공된 타이난주청(台南州廳) 건물로 2003년 국립대만문학관으로 정식 개관하였다.

이 건물을 지나 조금만 걸으면 1932년에 개장해 대만의 모던시대를 연 하야시백화점이 우뚝 서있다. 백화점 내부에는 곳곳에 오래된 티비, 쇼파 등 과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품들이 있고 엘리베이터도 현재는 현대식으로 바꿨지만 층 표기는 전자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시계처럼 아날로그형식으로 되어있다. 옛날에 설계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협소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하면 타이난 시내의 야경을 볼 수 있고 특이한 점은 옥상에 신사가 있다는 점이다. 타이난의 밤바람을 맞으며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여행을 하고 숙소로 가 2박 3일 여행의 첫날을 마무리하였다.

여행의 둘째 날이 밝았고 짐을 챙겨 숙소를 나섰다. 호텔에서 준조식 쿠폰으로 호텔과 제휴한 아침 가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타이난은 당일 도축한 신선한 쇠고기에 팔팔 끓인 탕을 부어 먹는 우육탕(牛肉湯)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조식 쿠폰으로 그 우육탕을 맛볼 수 없어 조금은 아쉬웠다. 우육탕을 먹어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타이난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숙소 근처에 젊은 감성의 브런치 가게에서 아침을 먹고 타이난기차역으로 향했다. 11월이었지만 햇살이 여름날처럼 뜨거웠다. 다음 목적지인 르웨탄(日月潭, 일월담)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이난고속철도역으로 가야했다. 타이난고속철도역은 샤룬(沙崙)역과 이어져있어 일반기차를 타고 샤룬역으로 갔다. 그 후 타이난고속철도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타이중고속철도역으로 향했다.

타이중고속철도역 5번 출구 난터우커윈(南投客運)에서 르웨탄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1100NT 르웨탄패스는 타이중과 르웨탄 왕복버스표, 페리 이용권, 르웨탄 순환버스 이용권, 곤돌라, 구족문화촌 입장권, 제휴업체 할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르웨탄과 구족문화촌을 여유롭게 다 둘러볼 예정이라면 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타이중고속철도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정도 가면 르웨탄에 도착한다. 버스가 내려주는 곳은 수이셔부두(水社碼頭) 쪽이다. 오후 3시쯤 르웨탄에 도착하여 우선 숙소에 짐을 풀고 숙소 직원에게 르웨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르웨탄은 난터우현 해발 870m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 최대의 담수호로 둘레가 24km이다. 호수 중앙에는 광화도(光華島가) 위치하고 있고, 호수의 위쪽은 해의 모양을, 아래쪽은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하고 있어서 르웨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르웨탄을 둘러보는 방법은 크게 자전거, 페리, 순환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선선한 가을날씨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르웨탄을 둘러보고 싶었다. 그래서 숙소를 나서 자전거대여점으로 향했다.

자전거대여점에서 샹산인포메이션센터(向山遊客中心)까지 왕복약 1시간 반 코스를 알려주었다. 자전거대여료는 르웨탄패스로 15퍼센트 할인받아 170NT였다. 자전거대여점 직원이 친절하게 자전거도로 입구까지 안내해줘서 헤매지 않고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 르웨탄의 옥빛 물과 안개를 머금은 산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순간이 굉장히 행복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 자전거를 타는데 무리가 없었다. 샹산인포메이션센터에 도착하여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르웨탄의 풍경을 바라봤다. 호수는 잔잔히 말이 없었지만 말없는 호수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샘솟았다. 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했고,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완벽한 날씨 속에 완벽한 풍경을 마주할 수 상황 자체가 감사했다. 자연은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한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넋을 놓고 르웨탄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가득 품은 채 왔던 방향으로 자전거 패달을 다시 밟았다.

사 설

위안부 화해 · 치유재단 해산… 후속 해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이듬해 7월 설립한 재단법인 화해 · 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위안부 합의는 아무런 내용 없이 이름만 남게 됐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재단은 한일위안부 합의의 양대 축이었다. 재단은 '일본 총리의 사죄'가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진정성을 상실하면서 위안부 합의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 왔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10월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재단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대상의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 왔다. 생존 피해자 47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생존자 1억 원, 사망자 2000만 원)으로 4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마무리 못 하게 됐다. 결국 재단은 1990년대 일본 민간 모금 형식으로 추진된 아시아여성기금에 이어 또 하나의 '실패한 해법'으로 남게 됐다. 위안부 합의도 재단 해산으로 양대 축이 모두 사라져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 존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7명뿐이다. 일본 출연금 처리도 난제다. 재단 해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은 할 수 없다. 일본 측에 반환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준수를 강조해 온 터라 받을 리 만무하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지켜가면서 외교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 고

제2의 녹색혁명을 기대하며

서 은 정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농업연구사

미국의 식물학자인 노먼 블로그 박사는 연구자로서 1970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로, 1960년대 밀 수확량을 2배이상 올려서 저개발국가의 식량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한 녹색혁명을 일으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일리노이주 대학의 롱박사팀은 앞으로 제2의 녹색혁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으키는 연구결과를 SCIENCE지에 발표했다. 주 연구내용은 식물의 햇빛 방어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광합성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완전한 독립적인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영양분(탄수화물)을 만든다. 하지만 과다한 태양에너지가 공급될 경우 식물체의 잎은 사람처럼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과다한 햇볕을 열로 바꾸어 발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적정한 환경이 되면 다시 원상태의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방어시스템을 해제하는 속도가 느려 이 과정 동안에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들은 이 과정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담배에서 태양광을 열로 바꾸는 과정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찾았고 유사한 단백질이 애기장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롱박사팀은 햇볕을 열로 바꾸는 것을 차단하는 애기장대 유전자 세 셋트를 담배에 추가로 넣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과다한 햇볕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광합성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작용 없이 담배의 무게가 기존보다 14-20%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좀 더 분석해 보자면, 무게가 늘어나기 위해 광합성효율도 15%이상 증가했고 식물의 성장률도 15%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연구를 우리가 먹는 벼나 옥수수 같은 주요 식량작물에 응용할 경우 생산량은 최대 50%까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는 육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중 하나이다. 그러나, 재배기술이나 육종방법 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이 해마다 약 2%정도 증가에 그친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만 두고 본다면 가히 제 2의 녹색혁명을 가져올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유전자 변형작물이라는 가장 큰 난제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식물의 유전자를 다시 식물에 도입해서 얻은 결과이고, 지금 가장 빠른 연구진행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 가위기술 등의 응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빠른 시일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실제 응용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농업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농지, 인력, 에너지로 최대한의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제2의 녹색혁명이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기 고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사회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계층간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지는 아주 오래 되었다. 이제 가난의 대물림은 학생들에게까지 전가되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사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더 이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과거 계층간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사법고시 대신 차지한 로스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는 정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을 뒷받침할 사교육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인 스티븐 맥나미와 로버트 밀러 주니어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능력주의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시스템으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만 쌓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 이 능력주의는 사회에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경쟁을 릴레이경주로 묘사했는데, 이 릴레이경주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승점에서 혹은 결승점 근처에서 출발하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출발하므로 경쟁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큰 기둥, 즉 능력적 요인과 비능력적 요인 중에 개인의 능력보다 비능력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비능력적 요인에는 부모의 배경, 학교와 교육시스템, 사회적자본과 문화적자본, 부의 상속, 특권의 세습, 차별적 특혜, 사회 구조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와 교육은 삶을 대물림하는 잔인한 매개체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즉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부의 세습과 무형의 상속 자산이랄 수 있는 특권과 특혜의 대물림, 편견에 의한 차별 등과 같은 비능력적 요인들이 진학과 취업, 승진, 소득, 부의 격차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일보 김건호 기자는 10월 31일자 기사를 통해 사라진 공정경쟁 제도들 중에 입시제도와 사법고시를 예를 들면서 더 이상 우리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월 700만원을 버는 가정에서는 사교육비로 44만원을 쓰는 반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서는 월 5만원을 사교육비로 쓴다는 것이다. 사교육 지출 격차가 전년 6.4배에서 8.8배로 더 커졌다. 전년과 비교하면 최하위 가구에선 1인당 사교육비를 6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23.6%를 줄인 반면 최상위 가구는 42만원에서 44만3000원으로 오히려 5.6% 늘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집계됐는데 이는 학생 100명 중 68명만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란다.

대학입시에서 정시가 축소되고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는 사라졌다. 1963년 시행된 사법시험은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필수 자격시험으로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로스쿨은 지금까지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학비는 2000만원에 달하고 이런 고액의 학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입 정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3년간 성적을 유지해야만 하는 수시제도의 경우 사교육이 힘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제도다. 또 각종 자료를 만들고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내신경쟁 격화와 고액과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계층간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 이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각도 이미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1년 정부가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들의 73%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 희망이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라도 공정한 사회, 희망을 주는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샬롬.

동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총 2000여 만원 지급

1906세대에 이달 중 지급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올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주민 1906세대에 총 20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이나 상점에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포인트로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사용치와 비교해 5% 이상을 감축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1906세대를 확정했다.

집계결과 이들은 전기 1564MWh(메가와트)와 수도 9만8665㎥(톤), 도시가스 1702㎥(톤)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센티브로 산정된 총 2030만원은 이달 중 각 가정에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호 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녹색환경 보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녹색환경을 지키고 소정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251-454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순회설명회

대전시는 다음달 6일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참여 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주민 홍보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마련하게된 것이다.

12월 6일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을 시작으로 12월 11일에는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12월 12일에는 대덕구 덕암동, 송촌동, 중리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설명회를 통해 ▲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배경과 목표 ▲ 주민자치회의 주요역할과 기능 ▲ 타 자치단체 사례 중심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서울시 금천구의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진행을 맡아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치구와 시범동은 오는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된다.

대전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향후에도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 회 장 김 성 구 |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야구협회

2019년도 협회장기 리그모집

리그진행

리그일정 : 2019년도 2월 중순 개막

경기시간 : 2시간 (10분전 새 이닝 불가)

경기 수 : 14경기 진행

경기진행 : 2심 1기록제 (게임원 실시간 기록)

리그방식 : 풀리그 방식(리그별 1위~4위팀 플레이오프)

모집요강

모집부문 : 토요리그 - 3부 15개팀, 4부 15개팀

일요리그 - 3부 15개팀, 4부 15개팀

1차모집 : 2018년 11월 12일 ~ 2018년 12월 30일 까지 접수

(기존 회원사 부터 우선 접수 받습니다)

2차모집 : 2018년 1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까지 접수

선착순 우선순위

문의사항

문의 및 참가 확인 전화 또는 게임원 게시판 참조

010-4442-7752 (서구야구협회 김태선 사무장)

010-2220-9968 (서구야구협회 김형태 심판장)